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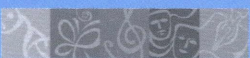
2019
생활문화 기초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생활문화 리빙랩 Living Lab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COMMUNITY PRACTICE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MMUNITY OFFICE PRACTICE

2019
생활문화 기초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COMMUNITY PRACTICE

생활문화 리빙랩 Living Lab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9

**생활문화 기초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주 최 경기문화재단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진 행 윤동현, 오다예
디자인 편집연구소 공감

발행일 2019.02.28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031) 239 - 1020
팩 스 031) 239 - 3785
홈페이지 www.kccfgg.org

Contents

I 연구개요_ 7

II 연구과정_ 15

III 연구결과_ 25

1. 공동주제 연구_ 26

1) 생활문화와 일상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_ 27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_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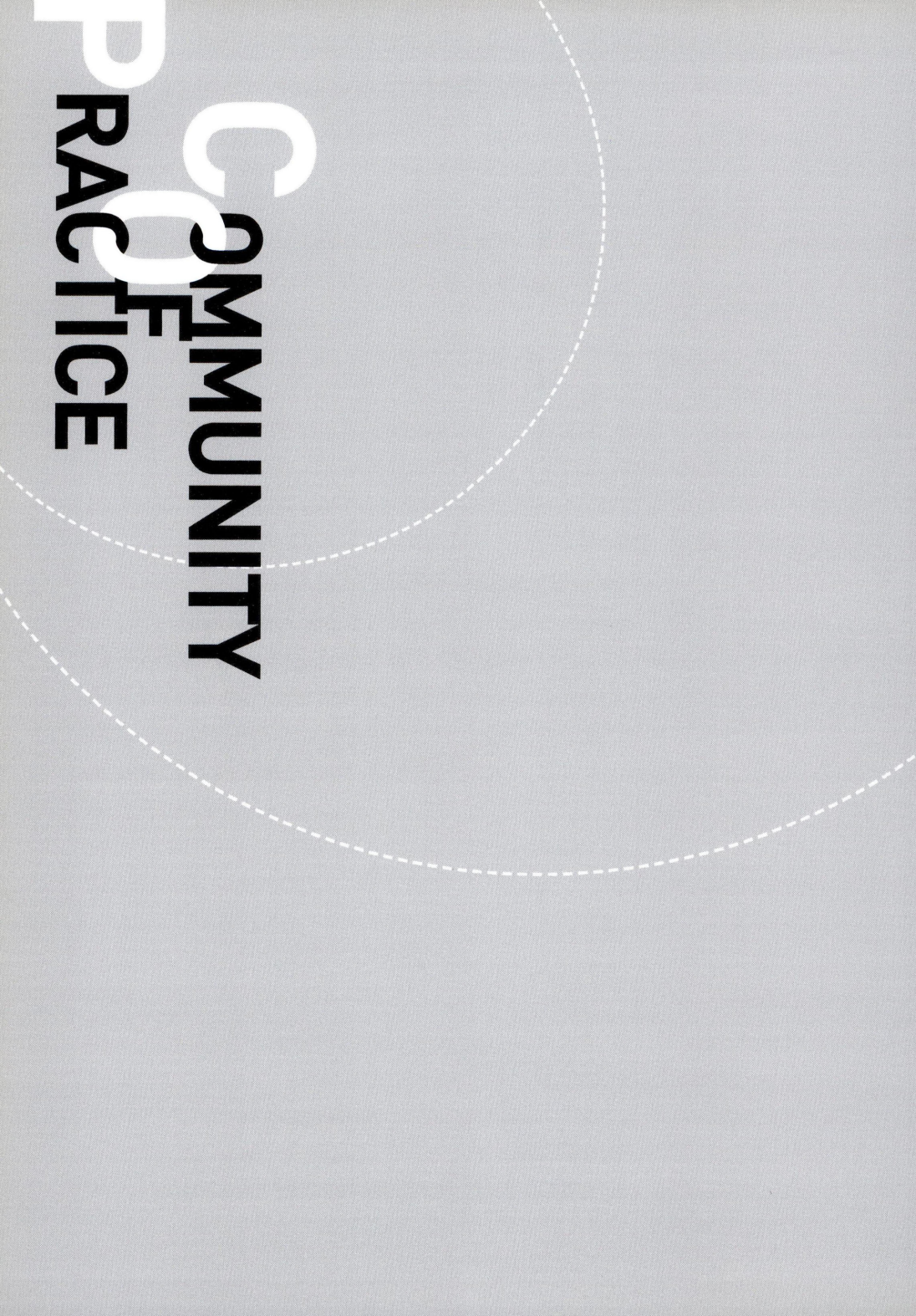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_ 71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_ 115

2. 개인주제 연구_ 150

COMMUNITY OF PRACTICE

| 연구개요



COMMUNITY PRACTICE

1. 현황 및 배경

- 지역문화원이 지역에서 입지가 좁아지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문화원 직원들이 다수 있음.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문화원이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 지역문화원은 '생활문화'를 이미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폭 넓은 담론 형성이 어려움
- 이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삶의 태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험을 해보고, 이를 지역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
-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준의 '생활문화'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고,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생활문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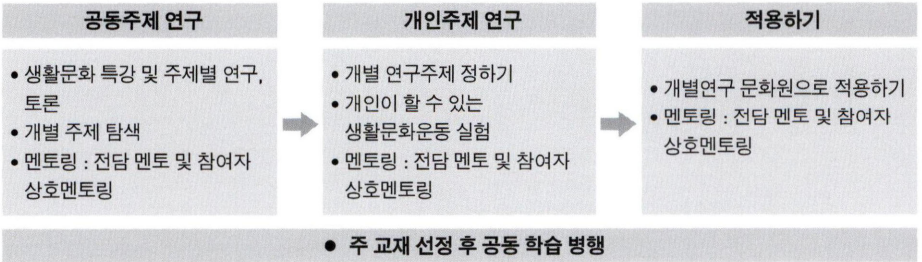
2. 목표

- 생활문화를 단순 동아리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 성장시대의 대안적인 삶의 모델'로 삼기위한 '생활문화' 재정의, 재사유 하기
- 참여자 스스로 삶의 태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험을 해보고, 이를 지역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기
- 경기도 지역문화원 직원을 대상으로 CoP를 구성하여 '생활문화'가 지역에서 운동성과 연결되기 위한 방법 찾기

3. 개요

1. 사업명 생활문화 리빙랩(Living Lab) _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 Living Lab ; Living Laboratory -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의 실험실로 인식해보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실험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기초로 삼자는 취지를
 담았다.
2. 기간 2018년 12월 12일 ~ 2019년 2월 21일
3. 장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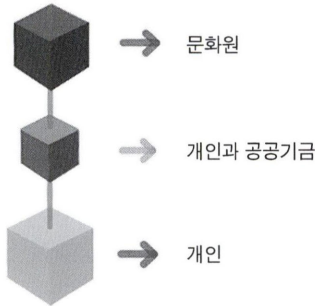
4. 연구 프로세스



5. 연구 주제

〈공동주제〉

-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 1) 생활문화와 일상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개인주제〉

- 1) 문화원 사업은 왜 문화원스러울까?
- 2) '설화'에서 옛 사람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
- 3) 우리의 일상생활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생활문화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 4) 가장 보통의 일상. 가장 보통의 특별함. 내가 바라보는 일상으로 생활 속 가치 찾기.
- 5) '소외'과거의 소외와 현대의 소외는 어떻게 다르며,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는 무엇일까?

6. 참여자

	이름	소속	역할
1	최경애	시흥문화원	학습 및 연구
2	배준영	화성문화원	학습 및 연구
3	윤동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진행
4	박소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학습 및 연구
5	이선민	이천문화원	학습 및 연구
6	오다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학습 및 연구
7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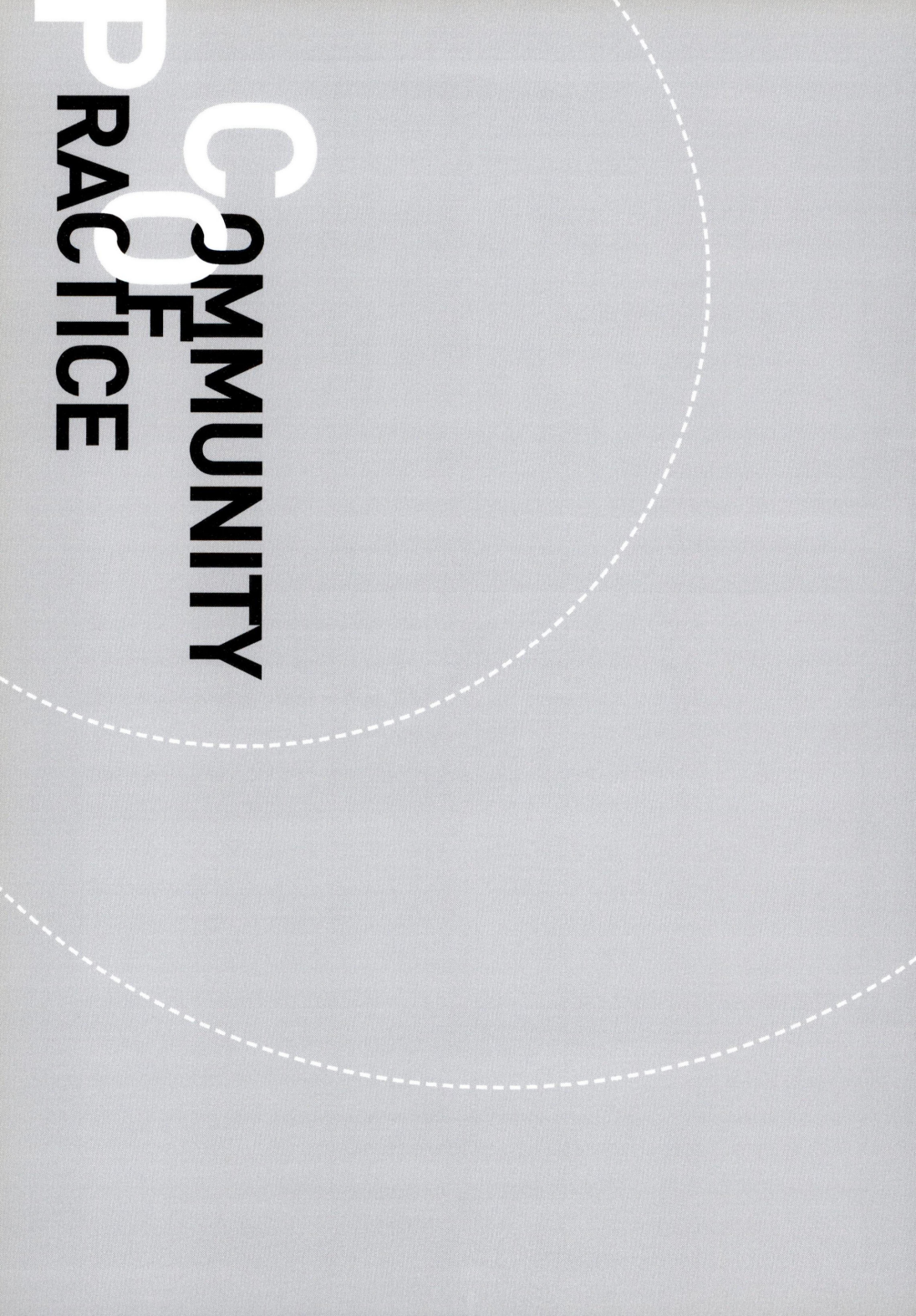
7. 일정

구분	차시	일정	내용
공동 주제 연구 중심	1차시	12/12	- 자기소개 및 방향공유 - 토론) 자신이 바라보는 '생활문화'에 대하여 개인 관심 주제 나누기
	2차시	12/20	- 특강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 개인 연구 이야기 및 결정사항 논의 (주교재 확정 등)
	3차시	12/26	- 연구 및 토론)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일상에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 주교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1~2장 - 개인주제 방향 공유 ·피드백
	4차시	1/2	- 개인주제 연구
	5차시	1/9	- 특강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_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 욕망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는 현대철학의 흐름
	6차시	1/16	- 연구 및 토론) 개인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 <개인의 욕망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해야하는가?> : 주교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3~6장 - 개인주제 방향 확정하기
개인 주제 연구 중심	7차시	1/23	- 특강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_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8차시	1/30	- 개인주제 연구
	9차시	2/13	- 연구 및 토론) 세 번째 특강을 듣고 - 생활문화와 운동성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생활문화 ·문화운동이란?> - 주교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7~9장
적용 하기	10차시	2/21	- 마지막 이야기 나누기 및 마무리 문화원으로 돌아가서..... - 결과물 취합

여 백

COMMUNITY OF PRACTICE

|| 연구과정



COMMUNITY PRACTICE

1차시



일 시 2018년 12월 12일 19:00~ 21:00

장 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내 용 '생활문화 리빙랩_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오리엔테이션

1. 구성원 간 자기소개
2. 학습실행공동체(CoP)설명 및 방향 공유
3. 방향 조율 및 설정
 - 날짜와 시간
 - 연구 방식에 대하여
 - 결과물에 대하여
 - 교재 설정에 대하여
4. 이야기 나누기
 - 기대하는 바
 - '자신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에 대하여

2차시



일 시 2018년 12월 20일 19:00~ 21:00

장 소 놀숲 수원경기대점 세미나실

- 내 용**
1. 개인 연구 이야기
 - 개인 연구의 주제와 결과에 대하여
 - 개인 연구의 방식과 과정에 대하여
 2. 결정 사항 논의
 - cop 전체 운영 방식에 대하여
 - 주교재 선정
 - 앞으로의 특강과 강사에 대하여
 3. 특강
 - 특강 ① 생활문화와 일상_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3차시

일 시 2018년 12월 26일 19:00~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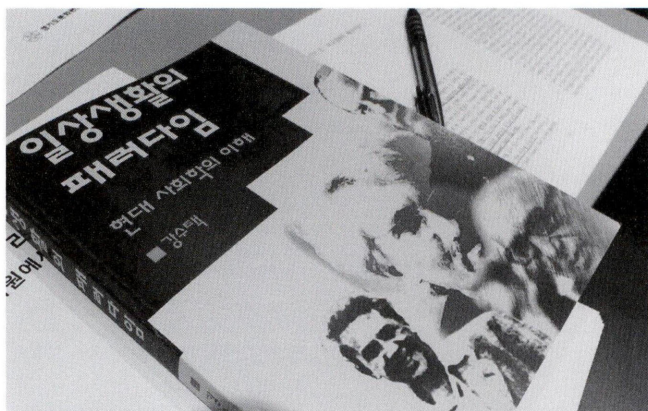
장 소 놀숲 수원경기대점 세미나실

내 용 1. 연구 및 토론

- 첫 번째 특강을 듣고...
- 주 교재 1~2장을 읽고...
- 특강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일상생활'과 '생활문화'에 대하여 토론
-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논의

2. 개인 연구 주제 논의

- 개인별 자신의 연구 방향 결정 및 공유
- 멘토 피드백 진행



4차시

개인주제 연구

5차시



일 시 2019년 1월 9일 19:00~ 21:00

장 소 수원 3rd SPOT (써드 스팟)

내 용 1. 특강

- 특강 ②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_개인의 욕망과 공공기
금 지원

: 욕망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보는 현대철학의 흐름

2. 논의

- 과제 및 결과보고서

6차시

일 시 2019년 1월 17일 19:00~ 21:00

장 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내 용 1. 연구 및 토론

- 두 번째 특강을 듣고...

- 주 교재 3~6장을 읽고...

- 특강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일상생활’과 ‘생활문화’ 및 ‘욕망’에 대하여 토론

-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논의

2. 개인 연구 주제 논의

- 개인별 연구 진행 상황 공유

- 멘토 피드백 진행



7차시



일 시 2019년 1월 23일 19:00~ 21:00

장 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동 3층 문화사랑방

내 용 1. 특강

- 특강 ③ 생활문화와 문화운동_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생활문화와 운동성 발현

2. 논의

- '문화원으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연결 짓기
- '3가지 전략'의 비교
- '운동성'에 대하여

8차시

개인주제 연구

9차시

일 시 2019년 2월 13일 19:00~ 21:00

장 소 놀숲 수원경기대점 세미나실

내 용 1. 특강 리뷰

- 세 번째 특강이었던 <생활문화와 문화운동_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생활문화와 운동성 발현> 복습

2. 연구 및 토론

- 주 교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7~9장 내용 연구

- 주 교재 마무리 및 토론

- CoP 학습을 통해 얻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10차시



일 시 2019년 2월 21일 19:00 ~

장 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외

내 용 - CoP의 처음과 끝을 돌아보며 얻어간 것, 느낀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 CoP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후기와 차후 CoP 진행 여부 및
방향 설정

COMMUNITY OF PRACTICE

III 연구결과

COMMUNITY PRACTICE

공동주제 연구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 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 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특강

‘생활문화’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아마 멀리, 그리고 오랜 전부터 여행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전제를 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게 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학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대 그리스철학에서 이데아적인 영역은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데아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분리시켜 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극작가 에우리피데스는 생활, 삶의 영역을 이야기 할 때 일상을 영적생활과 분리하여 사고했습니다. 아마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인간적인 부분들에 대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중세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리스에서 말한 이데아 영역 즉, 신적인 영역이 하나님, 야훼라는 영적인 부분으로 수렴되고, 인간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죠.

아래 그림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인간 실존의 통상적인 양식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철학생활과 구별



낮은 가치

(부, 명예, 통상적인 것, 세속적인 사랑)

일상생활 vs 철학생활

일상생활 vs 영적생활

에우리피데스(그리스 극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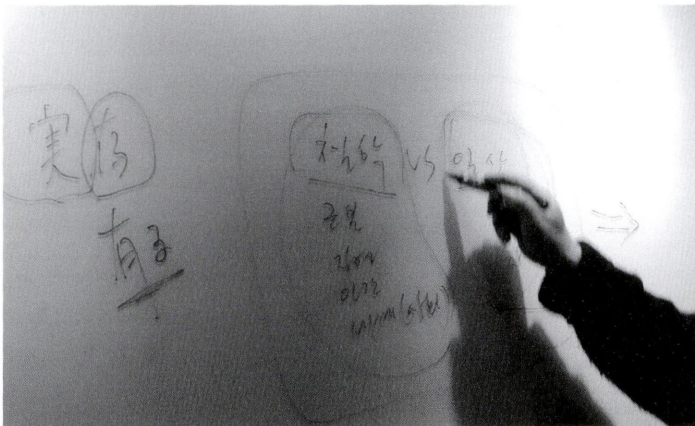
인간적인 것의 의미가 일상생활의 내부에 있다!



기독교의 영향

그리스 신들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아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대단히 가까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철학에서는 신과 인간이 철저히 분리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된 약 1300년간 기독교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를 철학적 암흑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몽주의의 등장과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초월적인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음



기독교의 성(聖)개념 차츰 약화됨

마르크스 & 엥겔스

무산대중의 궁핍한 일상생활을 새롭게 변혁시키려는 실천적 의지와
그 변혁방향 제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을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강력히 확대해야 한다

문화정책의 중요성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하기'와 '일상'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리스신화의 신들을 보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영역, 이 데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삶과 크게 유리되어 있지 않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과 '철학하기'가 완벽히 분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세계에 와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르네상스, 중세로 접어들게 되면 소위 말해 계몽주의가 생겨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르네상스의 뜻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이런 저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있었던 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보니 그 당시 사유의 깊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독교 철학의 본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이 나를 인도 해 주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이런 공포심으로 끝없이 인간을 노예화 시키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일갈인 셈이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보니 제우스나 우리나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철학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도 '인간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여기서는 성(聖)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스러운 것들도 인간의 이성으로 답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성스러운 것, 영적인 것들도 파악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이 그렸습니다. 이것이 1300년간 유지되어 온 근본 가치를 뒤집어엎는 운동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단련 시키기 위해 르네상스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많은 철학자들에게 배워 백성을 계몽 시켜야 된다는 흐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가 데카르트를 다 연구하지는 않았습니 다만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낙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실존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늘이 존재 한다는 것이 명확해져야 하늘이란 말을 쓰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데카르트에 와서 하게 됩니다.

니체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중세기독교 철

학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노예 의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체를 기점으로 신적인 영역, 철학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연구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인간에 대한 연구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니체가 철학사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철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시킨 것입니다.

이제 생활문화에 대한 얘기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보죠.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비교하기 쉽도록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달자면, 이분법적 사고는 대단히 거친 사고입니다. 항상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선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채택'이라는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매일 매일의 생활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日常(にちじょう) 生

活(せいかつ). 매일매일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일상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상이란 말이 조금 더 명확해 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일상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 집, 노동, 생활이라는 반복된 일상이 비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매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비루합니까, 행복합니까?

박**

**저는 매일 다릅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거친 이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루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에서 앙리 르페브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비루하다고 봅니다. 최** 과장님 같은 경우, 문화원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의 일상은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남편 또는 자식들이 오면 밥을 하루 세끼를 해야 하고 또 벗어 놓은 빨래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들을 평생토록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생리를 평생 동안 해야 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자고 회사에 출근하

고 퇴근하는 일상들이 반복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평생을 반복해야 하는 숙명적 일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일상을 비루하다고 보는 관점을 선택 했을 경우 여러분은 어떤 문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일상의 '일탈'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일탈 시키는, 매일 반복되는 비루한 일상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힘을 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최** 과장님 이 나의 일상은 비루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일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문화원이 라는 구조를 통해서 일탈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그것도 직장이니까 왔다갔다만
하면 비루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것을 하니까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은 비루하다'라는 관점을 채택하는 순간, 내가 만들어 내는 문화사업의 개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기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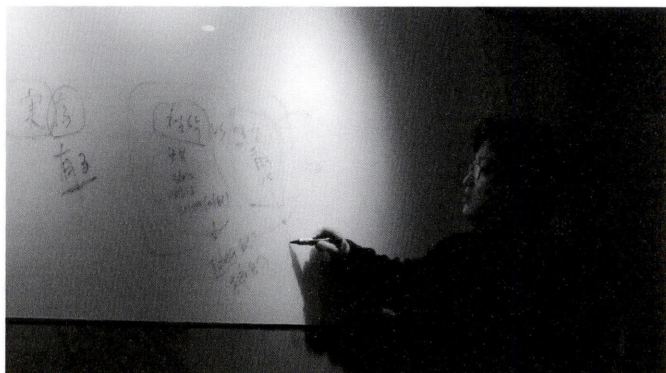
반대로 '일상은 행복하다' 다시 말해 '일상은 위대하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일상이 비루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대단히 위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존재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발굴, 발견해야 합니다. 삶의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굴 보다는 발견 쪽에 집중이 되는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보기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낯설게 바라보게 되면 이 안에 수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 인문학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낯설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하게 소크라테스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문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생활문화에서 '일상'이라는 단어를 끌어내고, 일상을 이야기 할 때 철학적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다르게 보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죠.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적 관점으로 사회구분을 하면, 원시, 고대, 노예제, 봉건시대, 자본



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역사발전의 5가지 법칙으로 설정합니다. 원시시대에는 계급이 없이 평등했고, 고대 노예제는 노예주와 노예가 있었고, 봉건시대에는 영주와 농노가 있고,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발전한다는 개념에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대 노예제가 봉건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원시시대에는 기술이 계속 진보 합니다. 그래서 토기도 만들고, 쌀을 재배하는 기술이 발달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니 예전에는 다 같이 나누었는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힘으로 정복하게 되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계속 생산을 하니까 주인은 놀면서도 다 착취를 합니다. 그런데도 생산량은 더욱 더 많아집니다. 그동안 주인이 다 가져갔는데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집니다. 노예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주인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자기의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점차 노예들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를 노예로만 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신분을 조금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이 농노라는 형태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력이 발전할 경우 시대가 변한다는 논리로 역사를 분석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무산대중의 궁핍한 일상생활을 새롭게 변혁 시키려는 실천적 의지와 변혁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산대중은 노동자들, 프롤레타리

아입니다. 노동자들은 궁핍합니다. 매일매일 회사에 가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에서 행복함을 느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이들이 힘이 세어지겠구나, 세상이 변하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으나 세상이 저절로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말해 운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이 궁핍한 일상을 바꾸어 내는 것은 실천적 의지이다. 이것이 있어야 시대가 변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화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 사회 구조적 개념입니다. 정치, 경제학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것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실천적 의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 68혁명을 계기로 사회를 정치적, 역사적 개념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르페브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성의 영역을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

일상생활이 학문적 관심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유

“시대와 사회 집단의 산물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인간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활을 이루는 ‘생각’과 ‘행위’의 문제가 동시에 중요한 고찰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일상 생활의 세 요소(영역)

노동

가정생활
[사생활]

여가시간

는 것은 실천적 의지라고 했습니다. ‘삶은 곧 일상이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일상의 변화에서 실천적 의지가 갖는 중요성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마르크스와 연결시킨 르페브르의 참신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문화 운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3주제 강의를 있습니다. 생활문화 운동성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최**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조금 읽었는데
왜 생활 문화를 하는데
일상성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하고 생활,
이렇게 딱 두개를 놓으니
일상이 곧 생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일상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영역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따로 따로 분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가정, 여가가 따로 분리 되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박** 샘이 제일 처음 경기 도문화원연합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

키는 일이다. A라는 삶에서 A'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노동 이라고 하는 A의 삶이, 노동이 기쁨이 되는 A'삶으로 변화 시키는 것. 이것이 '노동운동'입니다.

가정생활(사생활) 영역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삶에서 A'의 삶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운동성이 있습니다.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노동이 비루하기 때문에, 노동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에서 돈을 벌어서 여가 쪽에 투자를 합니다. 여가생활을 투자 한다는 것은 노동을 A'삶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A라는 삶으로 두고, 여가 쪽으로 받은 돈을 투여한다는 것을 뜻합니

일상생활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곳!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일상성의 특성

1. 일상을 순환적인 시간, 리듬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
2. 일상성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3.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징'들을 중심으로 둘러쌓여 있다!!
4. 순환적인 시간과 그때 그때의 사회적인 공간, 즉 주책과 그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제 욕구의 충족과 과제들의 해결로 채워져 있다. 이 충족과 해결은 매일, 매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동일한 방법들로 이루어진다.

다. 그러면 일상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라본다면 노동도 내 삶의 일부인데 내 삶의 1/3을 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노동으로 8시간을 버려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이야기 할 때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앙리 르페브르는 역으로 일상생활의 요소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즉 삶을 좋게 변화 시키는데 있어서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해야 할 일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곳.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일상성의 특징은 일상을 순환적인 시간, 리듬에 의해 지배되었고 일상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는 상징들을 중심으로 둘러 쌓여있다. 순환적인 시간과 그때 그때의 사회적인 공간, 즉 그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과제들의 해결로 채워져 있다.’이 충족과 해결은 A에서 A'로 해결, 변화로 해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 충족과 해결은 매일, 매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동일한 방법들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대단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

일상성속에는

욕구와 소망,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경박한 것과 진지한 것

노동과 여가,

소외와 소외로부터의 해방.....

변증법적인 모순들이 다양한 형태로 숨어있다.....



그러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에서의 영역은 노동, 개인 생활(사생활, 가정)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3가지 요소입니다. 그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 사적이 있는 것과 공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경박한 것과 진지한 것, 노동과 여가, 소외와 소외로부터의 해방. 이런 모든 것들이 변증법적인 모순들로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나 내 개인적인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내 욕망이 나의 행복으로 전환 되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구'와 내 '소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내 욕구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상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연구들을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고민 하고 있습니다.

'동네형들'이라는 청년단체의 박도빈 선생이 했던 '개인의 욕망을 공모합니다' 프로젝트를 '개인의 행복을 공모합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박도빈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소망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삶과 노동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자본으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외'가 발생합니다. 노동은 삶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업화입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전문화 시키고 분업화 시킨다는 것은 온전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지 못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다 부품 생산을 하도록 해서 저절로 컨베이어벨트를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완성품이 생산되는데 전체과정은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발생하는 공동체를 해체시켜서 분리를 시킨 형태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인간 소외가 나오는 것입니다. 앙리 르페브르는 이 점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성행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맥락은 인간을 분리시키니까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관계 맺기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 익명성이 보장 되어 있는 도시의 삶. 끊임없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서 인간은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소외되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소외의 과정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이 소외라는 중요한 부분을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하는 솔루션들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극복에는 자본주의의 극복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앙리 르페브르는 이 자본주의의 극복을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앙리 르페브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왜냐면 거기서부터 인간의 소외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문화를 이야기 할 때 공동체,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들은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이 소외의 극복을 어떻게 찾아낼까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 생활문화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커뮤니티와 공동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인간 소외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이 과정들을 알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과 그냥 접근 하는 것에 따라 사업을 풀어내는 과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라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욕망이나 소망이나,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이나. 이러한 다양한 이분법적인 명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다름, 싸움, 어디까지가 공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것인지 끊임없는 갈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하자면 노동, 가정(사생활), 여가 개인의 일상도 3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이 모여 만든 사회

일상성의 변증법적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총체성 : 전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실천적 관심 :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만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상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상성 속에 존재하여 일상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소외현상의 발견’과 그것의 ‘비판적인 극복’

그러므로 생활문화를 일상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위와 같다!!!



전체를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변증법적인 모순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소외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분업화와 아파트. 남성과 여성의 소외, 여성이 남성중심의 사회로부터 여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쓰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온전한 자기관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제일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여성스러움?

박**

언어?

아닙니다. 내 성(性)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 폭력입니다. 강간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면서 여성이 강간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여가를 여성 혼자서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 혼자 위험하지? 끊임없는 위협. 이것도 여성의 소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건강한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소외시켜 버리고 대상화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에서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들을 변증법적으

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正)이 있으면 반(反)하는 소외의 것들을 계속 투쟁해서 새로운 합(合)을 만들어 이 변증법적 모순의 극복과정을 발견해내고 발굴해 내는 것. 어려운 말이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훈련. 이런 것이 변증법적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문화 사업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하면 끊임없이 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소외, 변증법적 모순에 관계되어 발굴, 발견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운동성입니다. 생활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성을 기본적 바탕

에 깔고 사업을 설계해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풀어내는 방식도 일상의 소외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생활문화 사례들을 잘 생각해보면 전부 이 소외의 요소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소외를 어떻게 극복시켜 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양철모씨가 생각해낸 솔루션은 ‘마석 MDF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그 소외를 발견하고, 변증법적 모순을 찾기 위해 철학적인 바탕이 필요한 것이고, 철학적으로 어떤 시각과 다양한 행위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OMMUNITY PRACTICE

공동주제 연구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 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 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

_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특강

욕망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는 현대철학의 흐름 : 모던 - 포스트 모던 - 네트 모던

[윤한택 동국대학교 인간과 미래 연구소 연구원]

개인의 욕망에 관련된 이야기라 하면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유하고 있는지 철학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강론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전체 현대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여러 가지 각자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김**

생활문화라는 것이 요즘 많이 뜨고 있고, 생활문화 사업도 문화원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도 장려를 하고 이런 기회가 되어서 ‘생활문화 리빙랩’이라는 생활문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교재로 삼고 있는 책이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입니다.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와 생활문화와 관련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등을 지난시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생활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듯이 생활문화의 개념도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생활문화 사업이라는 것도 기관이나 문화원 마다 각자 다양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의 개념과 정의 말고 새로운 정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주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에 대해 나만의 새로운 정의를 해본다는 것을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문화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생활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번 CoP를 통해서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최**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활문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막막함 등이 이 모임을 통해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제가 생활문화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좋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과 생활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좀 더 내 언어로 자신 있게 생활문화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일상성에 대한 교재를 접하면서 생활문화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할까 의문을 갖다가 '아 이래서

이 교재를 보는구나'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웹진을 보다가 왔는데 내용들이 참 좋았습니다. 다는 보지 못했지만 공부를 하면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교재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

제가 문화사업을 해보면서 저의 욕망이라고 하자면 제가 행복해야지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삶도 괜찮은 삶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어 가는 문화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문화를 공부하면서 일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다 자라고 나서 보니 아직 젊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궁금해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것을 궁금해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의 내려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내 일상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보통의 일상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을 인지해 보는 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낯설게 바라보는 시간을 이 CoP를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관심분야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통 ‘문화원스럽다’고 얘기하면 고루하고 옛스러운 이미지가 강합니다. 문화원 사업들이 보통 재단에서 하는 생활문화 사업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은 주민 중심, 주민 공동체 형성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문화원 사업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왜 문화원스러운지 지금 읽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정신분석’이라는 책과 연결 지어 분석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강 주제이기도한데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과 관련해서 보통 공공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기준에 맞을 때 윤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욕망과 행복이 다르지 않다고 볼 때, 윤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지원 할 수 없는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

저는 생활문화 사업을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행복, 삶의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이 ‘행복하다’라는 가치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욕구,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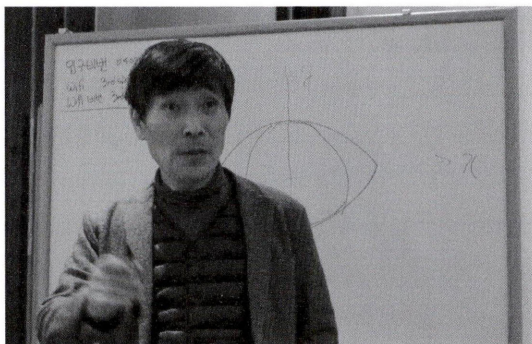
행복을 느끼게 될테고 그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과 등치시킬 수 있을까.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비루한 일상들을 회복하는데 어떤 생각할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포스트모던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야하는 하나의 흐름이 옥시덴탈리즘이 있습니다. 옥시덴탈리즘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 사상계에서 그 논의의 문을 연 것은 도올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21세기 노자를 읽고 논어, 유학,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불경들을 읽는 모임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흐름을 옥시덴탈리즘의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짝을 이루어 동양에서 일어난 동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던(Modern) 자체가 한계에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나온 것이 포스트모던(Post-Modern)이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동양 쪽의 것을 옥시덴탈리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1968년 프랑스에서 태동하여 20세기 후반기를 풍미했던 이들 흐름은 세기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다소 주춤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적절한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시대적 대안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우선 네트모던(Net-Modern)이란 용어를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



자역학의 패러다임을 가져와 볼 생각입니다. 포스트라는 말 이후에 붙일 것이 없으니까 네트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의 네트에서 딴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는 양자역학이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을 먼저 이해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면서 대안까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려고 제가 그려오던 도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 보죠. 자! 그럼 우리 눈을 단순한 도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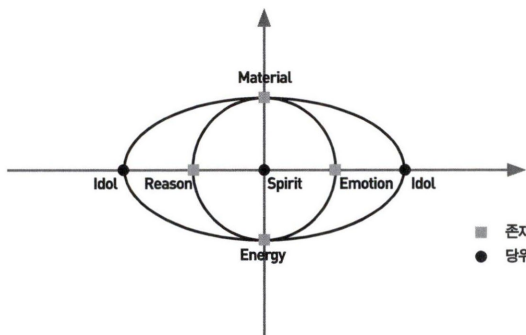
우리 옛날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사물들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각’을 통해서 봅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청각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사

물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초기 인류는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신에게 몸을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몸을 바치다가 조금 진전이 되어서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칩니다.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떼어내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치는 것이 눈입니다. 생식기나 눈을 뽑아 바친 사람에게서는 국가가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에서 소로 넘어갑니다. 희생양 공양이 그러한 변화과정에 이어지고 지금까지 온 최종의 산물이 제사상의 향일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눈’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은 자연과 소통하는 제1의 통로입니다. 안에 눈동자는 원이고 바깥은 타원형입니다. 가운데 지점에서 출발해 X축, Y축을 그리면 점이 일곱 개가 생깁니다. 점에 이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Emotion(감성), Reason(이성), Material(물성), Energy(역성), Spirit(영성), 두



눈의 모양을 통한 설명, 존재와 당위

점이 있는데 **Idol(우상) + 무한대와 - 무한대로**
우상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욕망과 문화원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 놀랐고, 또 지방문화원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기획서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욕망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현 시대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근엄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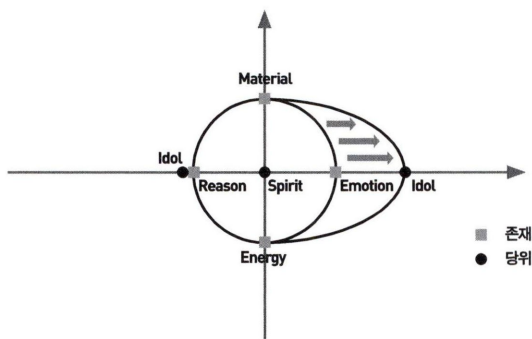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욕망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이 욕망에 대한 문제의식은 요새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시작할 때 '개인의 욕망에 관련

된 이야기라 하면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첫 출발은 계급사회와 함께 합니다. 엥겔스가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을 이야기 할 때 욕망부터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무엇인가, 욕망은 섹스와 연결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논점이 많겠지요. 모두를 제쳐 두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이 지배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본가는 돈을 벌려는 욕망이 있죠. 요즘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은 공공기금과는 상관없는 돈입니까?

즉 욕망과 공공기금이 배치된다는 생각 자체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예 의문조차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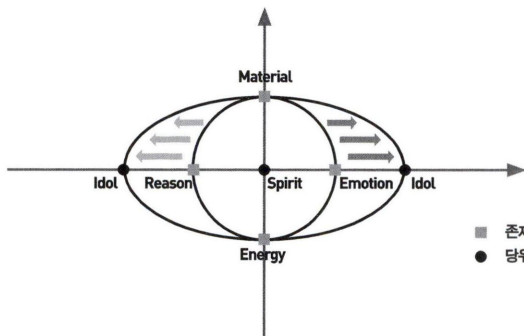


물질·감성 위주로의 확장

해 볼 거리가기는 할망정, 근원적으로 욕망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아까 어느 분이 제일 뒷자리에 계신 분의 인식이 진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의 원인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건강성이 권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이 문제이지 욕망 그 자체가 속죄양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가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욕망을 이야기하는가'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중세의 신분적 갑질을 벗겨버리고 물질 그 자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물질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원에서 출발하여, 타원으로 확장하고, 또 이 타원의 장축을 기준으로 원으로 확장하며, 여기서 다시 타원을 기둥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확장시

키는 동력으로 처음에 이모션(Emotion)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것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 최초의 욕망주의자가 아담 스미스였다는 것이죠. 흔히 오해되듯이 이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감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션(Emotion), 욕망이 계속 발달합니다. 이 원 속에서는 서로 간의 원점거리가 같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만 돌고 돌면, 이 원 안에서만 있으면, 한 점에서 어디를 가든지 같습니다. 이것을 상보라고 합니다. 서로 보충 한다는 뜻으로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고 합니다. 이 상보성은 양자역학 용어인데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주역에서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같은 개념으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주역의 문장을 가지고 자기 집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

안의 표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역의 태극문양으로 썼습니다. 어쨌건 원 안에서는 상보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상보가 확장된 타원은 모순으로 전화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모순을 도형에 비유하면 타원이 된다고 써 놓았습니다.

타원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도형입니다. 남녀, 음양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 지점은 전부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은데 가다보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기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면 + IDOL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이 동심원을 그리는 상태로 있으면 경쟁 자본주의에서 머물텐데, 타원 형태로 확장하면서 독점적 자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이 균형을 위한 이성의 동력을 적극적으로 끌어 온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욕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초기에 아담스미스가 물질의 단순재생산에 기반을 둔 노동가치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가치설은 주관과 객관의 측면으로 나뉩니다. 감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 주관적 노동가치설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이 계열에 속하며, 이후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학 흐름과 연결되는 오스트리아 학파로 이어집니다. 이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 객관적 노동가치설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이 계열에 속하고,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확대 재생산이 지속되면서 모순이 심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주류에 대항하

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도표에 따르면 이성을 가지고 감성과 반대쪽으로 끌어오면서 균형을 잡아 나갔던 것이죠. 이리하여 이 두 체계 사이에 모순 관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진영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 모순이 20세기 내내 계속 되어 오면서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온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최**

진영 모순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시대에 모순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 입니까?

네. 같은 말입니다. 그 모순이 작동하면서 사회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를 견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정 단계에 가니까 -쪽의 IDOL이 우상화한 '권력'으로 가버렸습니다. 양쪽의 팽팽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일정한 정도의 역사 발전을 추동하던 것이 우상화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표로 보면, 처음에 Material(물성)부터 시작해서 Emotion(감성)으로 갔고 Reason(이성)까지 온 것이 20세기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양쪽 추가 우상화한 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균형 자체가 탄력을 잃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서로 간의 체제 경쟁, 진영

모순이 작동하면서 이 자체를 끌어가는 동력들이 존재 했는데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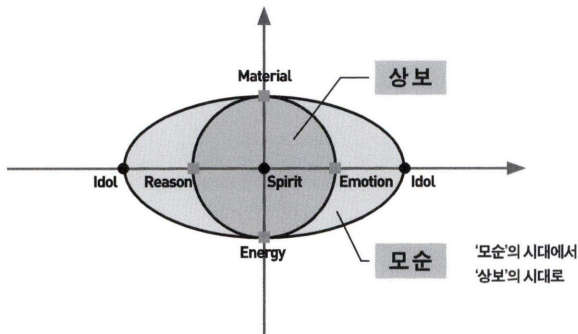
**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은
독점 자본주의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존 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눈이 더 커지지 못하게 되는 상

태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나 기존 체제 내에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근본적으로 '모순 자체가 문제니까 다시 이것을 상보로 회복하자'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이모션(Emotion)을 회복하자. 즉, 감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감성 때문인데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까 기존의 체계를 해체하기 위한 큰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양학과 옥시덴탈리즘의 흐름과 이어서 설명하자면, 감성 회복의 계열을 이은 서구의 포스트모던은 아까 얘기한 옥시덴탈리즘의 유불선(儒佛禪)중에 불교(佛)의 흐름



‘상보’의 상태와 ‘모순’의 상태

과 친연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이론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유심론적이잖아요.

불교의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으로 법성계의 ‘부동명(不動名)’을 들 수 있습니다.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부처를 부동명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이 이름과 관련된 변주로 전체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소쉬르로 대표되는 포스트구조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이에 반해 우상화된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성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쪽이 유학입니다. 논어 읽기, 맹자 읽기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를 특징적으로 끌어 오면, 공자의 일관도(一貫道), 즉 일관된 도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치우쳐 문제 된 지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부정의 부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흐름이 ‘선’입니다. 노자 도덕경 첫 장에 보면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 즉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없으려면 비상한 이름이어야 한다. 바로 이름의 천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관 쪽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객관 쪽도 비판합니다. 즉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도를 도라고 할 수 없으려면 비상한 도라야 한다. 이렇게 양쪽을 비판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욕시멘탈리즘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문제가 되고 이것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고 원상태로 되돌아가보고자 한 흐름 중에서 서구의 68년 이후 포스트모더니

즘 흐름이 하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욕시멘탈리즘에 바로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

단순히 오른쪽, 감성 쪽을 강조해서 욕망들이 계속 발전했을 때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이쪽은 사회주의권의 모순으로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등장하던 시점에서 그런 이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을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책을 보시면 감성 쪽에는 마페졸리가 여기에 있고 이성 쪽에는 앙리 르페브르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이 다릅니다. 앙리 르페브르 같은 이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사회 현실을 보고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외 되고, 결핍 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감성 쪽은 소외나 결핍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
핍이나 소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최초의 근대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생산양식, 사회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지
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이성
쪽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그들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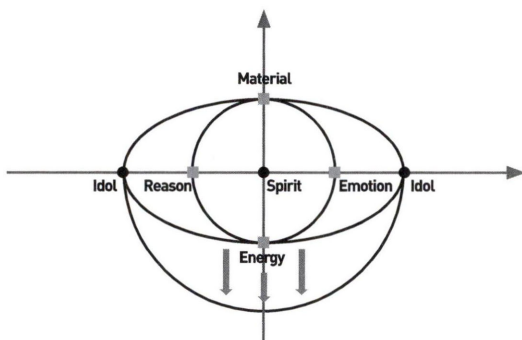
문제는 이렇게 이성과 감성으로 되돌아가보자
는 각각의 문제 제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결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했
다는 것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처에서 혼선
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
야하느냐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성,

이성 회복만을 이야기해서는 여전히 관념에 머
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 존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도표 중 x,y축과의 접점 중 남아있는 이 부
분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날 시대는 바로 이 지점 에너
지(역성) 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대사
회, 즉 모던(Modern)이 물질에서 출발하여 감
성·이성을 거쳐 우상화하자 이 체계를 해체하
기 위해 포스트모던, 욕시덴탈리즘이 이런 문
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궁
극적인 대안이 그 역성의 방향에서 네트모던
[Net-Modern]으로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모던,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물의 기본
단위가 ATOM(원자)이었다면, 이제 원자에서
QUANTUM(양자)로 그것이 이동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상보'로 가기 위한 흐름 (정원을 만들기 위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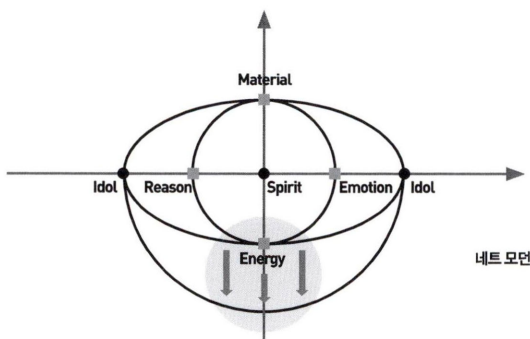
그림을 그려 냈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전체 흐름, 맥락만 이해하면서 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 흐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쉽게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

**이 눈이 인류가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대안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이
진보한다는 것은 점점 커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 또는 기형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될 때 정상적인 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상보의 상태로 가야 하고 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동심원을 그려서 커지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찌그러진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의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찌그러진 상태가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원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대사회 초기에는 사물의 기본 단위가 종자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세사회에서는 분자, 근대가 원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양자로 변화해 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고대 사회는 Emotion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섭되어 있었고, 중세에는 Reason을 중심으로, 근대에 들어 Material을 중심으로 포섭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네트모던 시대에는 Energy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포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모던에서도 포획이라는



에너지 위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섭, 포착 등과 동열의 의미로 보입니다. 포스트모던을 탈(脫), 비(非), 후(後)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탈근대, 비근대, 후근대라고 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탈이라고 하면 때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때내어 버려서는 결코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하려면 그것을 포착해서 내부로 끌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성을 중심으로 해서 감성과 물성을 전부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크기는 어떻게 되든 관계 없지만 중심은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잠정적으로 역성(力性)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역성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역성을 중심으로 이 주변 부분들이 포착되도록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익숙한 말로 하자면,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만들고 정확한 확률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역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은 사물의 원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 사물의 이름을 근대 초기에는 '팩트(Fac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팩트 대신 포스트모던 때는 '텍스트'가 등장했습니다. 팩트의 문제는 '진실'과 '사실'을 헷갈리게 합니다. '픽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팩트(Fact) + 픽션(Fiction)이 합쳐진 말입니다. 팩트가 팩트인 이유는, 틀릴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이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팩트를 애기한 '랑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고 하지

만 그것은 가공의 절대자인 신을 증명한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팩트가 문제가 되니까 포스트모던 입장에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끌어 왔습니다. 팩트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도 있고 검정교과서도 있듯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트라는 말을 가지고 팩트가 가지고 있던 가공의 신에 대한 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텍스트, '컨텍스트(Context)'라는 말이 나왔지만 역시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자의 시대에 사물은 모두 '데이터'로서 존재합니다. '메타데이터'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확률로 확인이 되므로 어떤 가공의 권위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와 '텍스트'대신 '데이터'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팩트와 텍스트는 모순의 개념이고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었습니다. 이때의 사실이란 그 당위를 체현하는 신 또는 Idol(우상)에 의해 규정되므로, 어떤 사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사실'이라는 것은 전제된 시간과 공간에 의해 규정됩니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물이 담기고, 자본주의도 담기고 사회주의 이런 것도 다 담기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사물이 그 자체로 낱것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지점에 오면 모든 사물은 '순간'과 '경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입자'로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이 순간의 경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담기면 사물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됩니다. 진실이 되

려면 그 순간의 경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산물인, 일초도 없으면 못사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아인슈타인은 못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최대 발명품은 아톰으로 만든 원자폭탄입니다.

근대 물리학의 시작이 뉴턴이라면 끝이 아인슈타인입니다.

1928년 코펜하겐에서 세계 물리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인슈타인과 닐스보어가 만납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이 닐스보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닐스보어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확률 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닐스보어가 아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라. 신은 신에게 맡겨라. 나는 끝까지 주사위 놀이를 해서 세상을 이해하겠다.”

그 이후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까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중언거렸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닐스보어의 조수인 하이젠베르크에게 원자탄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이야기를 들은 닐스보어가 묘안을 냈다고 합니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당시 세계의 파수꾼이 되었던 소련과 독일에 함께 제공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히틀러 귀에 들어가서 닐스보어가 쫓겨 스웨덴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원자탄 개발을 주문받고 있었고, 그 연구소에 가서 닐스보어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닐스보어는 원자탄을 개발하고 나서도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아들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원자탄 개발 역사와 함께 물리학이 아톰에서 쿼텀으로 이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옥시덴탈리즘 등 세계 역사의 주요 쟁점들이 흘러갔습니다. 이 양자역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근대로부터 현대로의 이행, 모던에서 네트모던으로 이행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 미국과 이 진영 사이에서의 이 싸움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은 원자탄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싸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역성의 흐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포착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일상성,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일상생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역성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포착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다른 감성, 이성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성을 이야기하면서 결핍이나 소외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발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강요되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은 것이 내부에서, 그것도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망의 자발성 뿐 아니라 지성에 대한 끈도 놓을 수 없겠죠. 지성과 감성을 결합하되, 역성을 중심으로 포착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이 되어 버릴 수 있고 이 운동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페졸리나 가타리, 들뢰즈와 같은 감성 쪽 흐름에는 두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고주의적 편향입니다. 현실의 이상 숭배를 해체하기 위해 고고학이란 표현을 동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옛날로 퇴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문명에 대한 지나친 비판의 결과 기술 경시라는 편향에 빠질 우려도 보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흐름 앞에는 ‘유물론적’이라는 관형어가 따라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들뢰즈가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욕망의 기계, 머신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따위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 편향을 역성을 중심으로 포착한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경기계’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신경산업’이라고 의식적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신경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라디오’입니다. 로봇, A.I, 드론, VR, 5G 이런 것들. 물성 시대로부터 역성의 시대로의 이행. 그 바탕이 ‘뉴론’인데, 바로 ‘신경(神經)’, ‘신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물성, 감성, 이성을 역성을 중심으로 포착함으로써 관념에서 탈출하면서도 이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자유로운 개인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로 인류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우리 전통 민속에서 찾아보면 ‘도깨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의 어원은 ‘터잡이’입니다. 사투리로 ‘토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터잡이는 터주[土主]입니다. 곡식을 향아리에 넣어서 뒤뜰에 모셔 왔던 것이죠. 도깨비는 방망이도 있고, 감투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면서도 괴짜입니다. 다리는 하나밖에 없고, 밤길 으스스한 곳에서 씨름을 걸어오지만 저서 나무에 걸리기 일쏘입니다. 아침에 다시 가보면 부지깽이, 빗자루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것들인데 얼마나 친근한지. 으스스하고 어두운 곳을 지켜준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황소를 올려놓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은 도와주고, 못된 놈들은 혼내 줍니다.

‘나’라는 인간은 ‘걸어 다니는 고기 덩어리’, 입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양자이론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자가 순간의 경계로 되고, 그 뒤에는 파동이 있게 되는 식이죠. 입자인 ‘나’는 파동인 도깨비와 항상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일상생활을 하든 생활문화를 실천하든, 신경산업의 관점에서 사고하면 훨씬 단순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적절한 확률을 찾아내고 인간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지성을 건지하면서, 기술경시주의나 복고주의로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꿈꾸는 모든 일상이 생활문화가 될 것입니다.

최**

저희가 오늘 오전에 문화 특강이 있었는데 제가 잘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욕망이나 소외, 결핍 이런 것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처럼 연결 지어져서 모든 것이 다 모던이나 포스트모던, 네트모던까지 다 하나로 간다는 맥락에서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욕시멘탈리즘 중 지성주의 쪽 논어에서 이야기한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 중 하나가 정조인데, 온고지신에 대해 신하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처럼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진부한 대답을 하면 정조가 그들을 초심자라고 자릅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자꾸 보고, 보다 보면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해보면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에는 방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때 성리학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정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옛것에서는 새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

습니다. 옛것을 자꾸 읽다보면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뿐이지 옛것에서 새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서 바라보면 정조는 포스트모던적이면서도 복고주의를 경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 현대는 역성이 중심에 서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감성, 이성, 물성 등을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배**

제가 이 모임에 처음 와서 그동안의 맥락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부에 개인과 공공기금에 대해서 우리의 주제가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개인과 공공기금, 생활문화와 욕망 이런 단어들이 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묻는다고 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하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두가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먼저 얘기 하겠습니다.

‘공산(共産)’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조차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었습니다. 자유란 ‘필연’을 넘어서는 것이고, 집단에 갇혀 있던 개인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과도기적인 모순의 세계를 넘어서 진정한 상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개인의 욕망과 공공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최**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면 그 사회에는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Semi-state 라는 개념을 씁니다. 레닌의 용어인데,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입니다. 형태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모순관계가 상보관계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는 편의상, 이 스테이트를 ‘영역국가’라고 씁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영역의 국가, 영토의 국가, 남을 지배하고 예속하는 국가 이것이 영역국가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국가를 ‘경계국가’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경계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역이 무너진다고 써야 합니다. 자기영역이 무너지고 경계는 갈수록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사물과 사물 사이에 돌이면 돌, 물은 물, 풀은 풀, 나무는 나무, 구름은 구름. 그런 경계가 명확히 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주의와 세계주의를 헛갈리면 안 됩니다. 글로벌이라고 해서 개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과 더불어 개체의 경계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존재 자체가 집단의 당위를 넘어 더 명확해지는 것인데 혼돈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무너지는 거고 경계는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바로 반국가입니다.

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가 더 발전할수록 이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려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도 필요하고 텍스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한 시대를 살아와서 그 잔영이 남아 있을 뿐이고, 텍스트를 텍스트로, 데이터를 데이터로서 메타 데이터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근엄한 이론이 아니라 크로스 체크밖에 없습니다. 교차해서 검증되는 것은 메타 데이터로써만 보장될 뿐이므로 선택적인 우상인 이론 속에 집어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대사회에서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든 시간과 공간에다가 얹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 가설을 세우면 거기에 갇혀서 넘어 설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두를 낸다고 하지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개념화하면 순간과 경계가 됩니다. 확률, 파동 이런 식입니다. 바야흐로 그런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내 손 안의 스마트폰이 바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최**

**스마트폰이 권력으로 가는
네트워크라고 하셨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 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이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그 궁극은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돈 나와라 똑딱, 어디 어디 무슨 영화 틀어 줘’하면 됩니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못 만들었습니다. 시공 속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최**

**지금 재단이라든가 기획자들
사이에서 지역문화다,
생활문화다 우리는 생활문화를
하냐, 지역문화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
미국 트럼프는 나름대로 독주를
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는 무너질 거 같은데
언제쯤 무너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은 기술, 지역은 민주의 문제와 관련될 텐데, 기술의 문제를 민주주의 문제만으로 환원시키는 현 우리 사상계의 지형 때문에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기술과 민주주의 문제는 일단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원자의 기술과 양자의 기술의 차

이, 원자탄과 스마트폰의 차이를 먼저 논의하고, 그 위에서 기술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시 결합시켜 논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상과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전화하는지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양자 기술은 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자의 그림자가 남은 과도기에 반대 편향이 발생할 소지는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양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상을 배제하는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미국 중심 세계 체제도 이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뉴스로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뉴스를 쫓아가기 바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가야 합니다. 양자의 운동 원리인 상보를 바탕으로 자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최적의 확률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지성과 자발성 그 모든 것을 포착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각 부문에서 제 각각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기 개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 개성을 억압하는 '우상숭배'에 유념하면 되

지 않겠습니까.

최**

아까 State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이 강조 되면서 소위 말해서 국가라는 것이 민족국가 같은 형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강조가 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점점 좁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강조가 되고 개인이 강조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는 공동체, 지역, 혈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앞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을 지향하는 영역국가로부터 경계국가로의 이행을 논의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로 한정해 이야기하면 필연에서 자유로, '나와바리'에서 '네트워크'로 전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열어나 갈지여나 놓는 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강제성에서 자발성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수반된다고 할까요. 오늘의 주제인 욕망의 거처와 관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박**

그러면 또 하나는 앞으로 역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로 거의 설명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로 그럼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모성애, 사랑 이런 부분들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모성애, 사랑 이것이 파동입니다. 도깨비를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사물은 입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 근대 물질관 이었고, 인간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근대인입니다. 네트모던에서는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입자가 아닌 거죠.

박**

이성적, 감성적 관점에서 유시민과 이택광 선생님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유시민과 이택광 두 분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화하자면, 이택광은 자발성에 유시민은 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에서 거칠게 마페줄리는 이택광과, 앙리 르페브르는 유시민과 같은 지형에 놓고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타리, 들뢰즈 등은 이택광의 지향과 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현대철학을 이야기할 때 최종적으로 들뢰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접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들뢰즈의 반대편에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망보다 이성에 더 방점을 두는 그룹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교재에서의 르페브르 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

지금 청년들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더 친숙하고 잘 다룹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세대가 앞으로 향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이라는 용어가 썩 내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기 존재를 선언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순의 시대로부터 상보의 시대로 귀환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쿼텀의 시대를 향해 상보로 가는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행기에 있으므로 과거와 미래를 실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모순의 관계, 당위의 관계를 폭로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존재론으로 돌아와서 존재론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전을 읽어보시면 예수, 석가, 공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존재와 자발성에 실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도마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의심하며 확인하기 위해 사람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도마복음서에 4대 복음서에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 29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영혼이 왔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육신이 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풍요한 영혼 속에 이렇게 빈곤한 육체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라는 것이 도마복음에 있습니다.

늘 불만스러웠던 유물론이란 용어의 부정확함을 더 절감하였고, 존재론이라는 용어를 더 고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용어의 한계가 무엇이라면, 의식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만이 물질로 간주되므로 결국 파동이 배제된 입자와 동의어가 되고, 용어상으로는 유물론이지 실제로는 물신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대 원자론의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 존재론을 관계론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다시 양자 존재론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가 양자역학 위에 서 있는 한 그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최**

어쩌면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톰 세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퀀텀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문화원연합회에서도
코딩, 프로그래밍 공부를 같이 할 의향이 있으
신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오전에 논어,
한자만 잔뜩 보다 와서 정리한
것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셔서
색다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눈은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눈만큼은
확실히 이해했고 나머지는 50%
정도만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런

주제로 평소에 누구와도 이야기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고양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곽**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

무언가 철학적인 이야기가
마법진처럼 설명되는 것도
신선했고 윤리학 사상 강의를
들었을 때도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지 도식화
한 것은 신선했고 귀결이
빅데이터로 가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AI 지배
이런 것에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

저는 만약에 이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내용인데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중학교 때 인강을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딱 이해가 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인강을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빅데이터 학과인데 코딩하는 것도 보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쓸모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 걱정스러워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것을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으면 꼭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오**

제 주변에 양자역학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공부 좀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식을 확인 했으므로 오히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보려고 애썼는데 어색한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 개진해 주셨던 욕망 이야기, 공공기금 이야기, 진보와 보수 이야기 등의 주제를 비껴가지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 백

COMMUNITY PRACTICE

공동주제 연구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 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 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

_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특강

생활문화에서 활생문화로

그동안 생활문화의 일상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쳐서 생활문화나 일상문화에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들을 보았고, 그 연구를 보면서 철학의 흐름을 지난시간까지 쪽 쥘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활문화와 문화운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문화원이 그동안 문화운동이란 단어를 금기시 해왔다는 느낌이 있는데 생활문화를 하면서 운동성과 연결 짓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모 관장님께서 문화운동, 문화예술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단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체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민감한 이야기까지 다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양원모 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는 인연이 있어서 제가 웹진에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겨울호에 발표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활생 문화로 나아가는 생활문화』라는 글입니다. 최근에 마을만들기, 지역 재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반이 대부분 지역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일구어 내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라는 글을 2013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_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주관 수원의회 제 21, 푸른 경기 21) 쪽에서 8대 분야 주제별 워크숍을 했는데 ‘공동체 문화’분야에서 기초발제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로 일구어 내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라는 글은 ‘생활예술로 일구어 내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로 바뀌서 읽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자료를 복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와 문화운동”으로 제가 발제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구체화 한다면 활생문화운동으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생활문화에서 생활이란 말을 뒤집으면 활생(活生)이 되기 때문에 활생문화운동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1차적으로 부여 받은 미션이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명(天命)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잘 살아남아라’, 이것은 자생(自生)에 가깝습니다. 그 기초 위에 지속가능한 형태로 계속 살아남고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상생(相生)해야 하는 것이고 상생을 넘어서서 더 가야 한다면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 외에 조금 더 크게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모든 생명 가진 것들, ‘모든 생명을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생, 상생, 활생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 기저 위에 말씀을 드릴텐데 2019년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꽤 오랜 역사라

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군 조선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반만년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올라가서 배달국도 있었다고 하고, 한국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신화적인 기록이건 국권회복을 하는데 자긍심을 복돋기 위해서 했던 간에 거의 9,000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 같은 느낌입니다. 임시 정부수립이후 100년, 정부수립을 1948년부터 따진다고 하면 70년 밖에 안되는 젊은 신생국가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라로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많은 것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고 그때부터 “민(民)이 주인이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대 국가 건립이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특히 혁명을 통해서 민(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든 곳에서는, 민(民)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매우 강조 하고 있는데 저는 시민이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제를 우리가 부여 받고 있으며 그 기초 위에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모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 민족, 일 국가적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세계혁명론을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견지에서 지구촌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일 민족이나 일 국가 단위로는 한계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 세계 시민으로서의 각성이나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기초 위에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시민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문화적 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화적 시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민(民)들이 민의를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광장에 모여 정치적 변혁을 몇 차례나 일구어낸 나라는 세계 역사상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매우 놀라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대치 이상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시민이 육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자각 위에 그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세계관, 철학, 사상, 미학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제 강점기 때나 해방직 후에 비해서 지적 거인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경우에는 유불선, 기독교를 다 회통하시면서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펼치셨고 함석헌 선생님, 양주동 선생님도 지적 거인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인지 한국사회에서 지적 거인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본은 가라타니 고진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세계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런 지적 거인들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술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독일을 다녀왔는데 일본, 독일, 중국 등 많은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했는데 한국은 사회 소수자 운동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콜로키움한 내용과 노숙자 관련해서 작업한 내용이 실린 잡지 밖에 초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작가는 함께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더니 한국의 작가 중에는 세계 전체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고민하며 실천하는 철학이나 미학이 있는 작가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테크닉이나 기량, 미적 감각은 좋은데 자기 철학과 미학의 뒷받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문화의 성숙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화가 숙성 되어서 문화적 시민이 있는 곳은 문화적 시민들이 정치, 경제적 영역을 촉발시키거나 견인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문화 부문들이 정치와 경제의 하위에 들어가게 되고 수단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철학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갔다 와서 철학을 한다고 하면 철학을 보급하는 것이지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문화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 과

정에 정규과목으로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하기, 사유하기, 생각하기. 문화 예술에 이런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문화를 숙성하기 위해 미래의 난제를 논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더 이상 정치선행론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문화선행론자입니다. 문화가 숙성 되고 선행(先行) 되어야 참발적이고 대안적인 해법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검토 되는 핵심은 문화 거버넌스, 문화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협치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몇몇 지역에서는 공유원탁회의를 실험하고 있다하는데, 공유원탁회의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도 실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단체와 소모임의 대표들이 모여 100인 원탁회의 같은 것을 구성한다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민주주의 실험이기도 하고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문화를 일구며, 문화부문 의제를 쫓아나가는 시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또는 지역 재생을 하며 생활문화를 일구면서 이런 실험들을 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념적으로 거버넌스는 무엇이다
이런 정리가 안 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 **

민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삼권분립이 되고, 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의회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대의제 민주주의였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 의원을 뽑아 의제를 개발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백년의 역사가 웅변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의제를 또렷이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배합,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겨납니다. 정치 주체가 시민들이 의뢰한 직업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치 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거버넌스를 민관 협치 이렇게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거버넌스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바람과 꿈을 갖고 진행할 경우 사회 전략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문화예술로 일구어 내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제일 뒷장을 열어보면 전략의 비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는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요 섭 부소장께서 '생명의 패러다임과 호혜사회



의 논리, 라는 글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조금 다듬은 것입니다. 모심과 살림연구소는 경기문화재단이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는 것을 4년 동안 할 때 협력 파트너가 되어 주었던 곳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회 전략이 청색 전략, 적색 전략, 녹색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색전략에서는 누가 중심이나 하면 '자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기업가형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금융자본가나 산업자본가들이 주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성장전략, 발전 전략이 청색전략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조 되는 중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시장을 중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이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효용과 효율을 강조하고 조직도 대중 조직으로 갑니다. 시장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만 구사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사회주의였던 국가들도 전부 시장사회주의로 전환되면서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 전략이 거의 대세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전략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색전략을 펼쳤었는데 중심가치가 '평등'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심부문이 '정치'입니다. 사회적 목표는 진보이고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경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분배'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도 결사체, 당을 중요시 하고 있고 리더들은 혁명가, 정치가 형입니다.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복지국가입니다. 이 전략을 구사한 것은 러시아혁명으로 세워졌던 소비에트가 여기에 속하지만 이 전략을 구사해서 인류역사에 크게 기여한 나라는 역사적으

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면서 만들어졌던 나라가 아니고 민주사회주의자가 많았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른 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건너 뛰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당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실험은 실패로 귀결 되었습니다. 거꾸로 성숙한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강조하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주창했던 나라들은 일정한 성과를 내어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색전략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이고 적색전략은 1917년이후니까 20세기 전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녹색 전략은 20세기 후반에 나왔지만 21세기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가치는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가 프랑스 시민혁명 3대 이념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뿔래야 뿔 수 없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면 박애에 찍어야 합니다. 녹색운동의 비조는 루돌프 슈타이너인데 발도르프 학교를 열었고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인지학(人智學)이라는 정신과학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분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가를 꼽으라면 백남준 선생의 단짝인 요셉 보이스입니다. 오늘날 현대 미술의 주류는 독일인데, 요즘 독일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요셉 보이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부한 제자이거나 그 제자의 제자입니다. 패전 이후에 독일이 결국은 평화적 전략으로 유럽의 변화를 이끌고,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상이 되는 배경에 이런 것들이 깔려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사회 삼원주의를 얘기했는데 자유는 '문화 영역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문화 영역의 자유, 사상과 철학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예술도 깊어집니다. 자유는 문화 영역이라고 얘기하였고 평등의 영역은 경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평등이 인류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胃)가 저의 두 배인 사람도 있고, 저보다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문에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정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남녀가 평등해야 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부자와 빈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를 누려야 합니다. 정치가 평등입니다. 그럼 박애의 영역은 어디냐면 경제가 박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빌게이츠를 위시한 100대 부자들이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많은 곳에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지어주었지요. 그들의 롤 모델은 척 피니(Chuck Feeney)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였지요. 그를 본받고자 하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슈퍼부자들이 부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통장에 기입된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흔쾌히 모두를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애입니다. 그래서 문화선진국에서는 자식을 명문 사립 대학에

보낼 때 학비를 정률제로 냅니다. 이를테면 부모 합산 연봉의 몇 %를 1년 학비로 냅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빈자도 부자도 벌금을 정률제로 냅니다. 이런 것은 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박애적인 것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들입니다. 경제는 박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 녹색전략이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전략이 배면 전략이 되어야 하고 청색, 적색전략은 이것 위에 배합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숲에 가면 앞들은 다 녹색인데 꽃들은 빨간 꽃, 보라 꽃, 청색 꽃 이런 것들이 피어나게 하듯이... 이럴 경우 중심 부문이 사회이고 또 다른 중심부문은 문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문화에 있을 때 사회적 목표가 진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발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체는 다중(多衆)입니다. 종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종교배로 혼종성이 출현하며 잡종강세로 역동성과 창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다중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다중이 등장한 것을 체감한 것은 촛불시위 때입니다. 녹색전략의 사회경제적 목표는 균형, 사회경제적 원리는 호혜입니다. 상호 호혜를 베푸는 것이 호혜입니다. 인류학 쪽에서 등장한 순수 증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건부 증여,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호혜인 것이고 순환, 공생, 네트워크 등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리더들은 예술가나 종교가형입니다. 문화나 예술 쪽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로 부상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프

란체스코 교황 같은 분들입니다. 예술가나 성직자 같은 일종의 수행자형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국가상은 자치제 연방 국가로 결국 지구촌 세계연방으로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블록 연방으로 가겠지만 이미 이런 자치제 연방이 잘 실현된 모델이 유럽연합입니다. 세계관도 다릅니다. 청색전략은 사회진화론에 기초합니다. 적색전략은 유물론이고 녹색전략은 전일적 생명관입니다. 전일적 생명관은 홀리스틱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홀라키적 홀리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전체이면서 부분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 몸에서는 전체이지만 이 몸 안에는 수조의 세포와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비교하자면 지구에는 인류도 살고, 너구리도 살고 고라니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더 큰 '나'로 올라가면 '나'도 지구의 부분이 됩니다. 홀라키적 홀리즘이라는 것, 아래로 위로 옆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현재 이런 세계관이나 새로운 이론들을 내오는 사람들은 현대과학의 성과에 힘입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현대 과학 공부를 예술가들과 함께 하고자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계 과학자를 모셔와 강의를 청해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11차원 세상이고, 공간적으로 10차원에 있고, 시간이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인 3차원 공간에 시간이 결합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세상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시 세계도 있고 거시 세계도 있고 다른 차원의 세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이야기 하며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4%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미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미에서는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탈후기근대 담론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정책을 보면 아기자기하고 웅기종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를 향해 요구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통 큰 것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 큰 세계관이 필요한데 이것을 초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근대 담론은 세계혁명까지 얘기 하는 거대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담론의 폐해 때문에 6.8혁명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미시담론으로 기울어 졌습니다. 미시담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성 중심적 또는 남성 중심적, 백인 중심적인 사유에서 놓쳤던 것을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웅기종기 하고 아기자기한 것에 매몰되어 매우 자족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웅기종기해서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등 다가오는 인류의 거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초거대 담론이 필요하고 초거대 담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이 나아가는 과학과 철학, 이런 것들로 다시 큰 그림이 그려지고 논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빅 픽처, 빅 히스토리 이야기가 나오고 초개인심리학 같이 초거대 담론의 구성에 필요한 것들이 요즘 핫하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한 후에 운동 이하기를 해야 합니다.

윤**

거대 담론, 미시 담론, 초거대 담론 그 후엔 또 초미시 담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난제를 풀기 위해 시대적, 사회적 요청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초거대 담론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지역 1국가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적 또는 인간중 중심적 세계관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자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성이 필요합니다.

최**

6.8혁명 이후에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모든 신경이 집중 되어 있는 삶을 강요당하고 살아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거대

담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SF 영화 중 '12 Monkeys'를 보면 동물권 신장을 주창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동물원 동물들이 다 풀려 나온 장면이 등장하는데 저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자각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구제역이 터지고 수십만 마리의 오리, 닭, 돼지들을 죽여서 비닐로 몇 겹을 싸서 묻어놓았는데 언젠가는 그 비닐도 삭게 되고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고 지하수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럼 우리의 문제로 곧바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까지 의식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급증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개과 동물 중에 늑대는 살아남은 개체가 20만 마리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에 20만 마리인데 개는 전세계 인구 70억 명 중 인간 10명 대비 개 1마리를 키운다고 해도 7억마리입니다. 보통 9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까지 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더 큰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없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인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70 억인데 앞으로 가게 되면 1.5배씩 뛰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더 올라가면 100 억명이 될 것이고 한 세대 더 올라가면 150억 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고릴라, 침팬지 같은 유인원은 몇 마리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늑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식물과 공생한다는 큰 시야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고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거꾸로 이야기 합니다. 단팥 식물에 인간이 길들여져 있다고... 밀이나 벼가 거꾸로 인류를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인류가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식물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생물의 종 다양성, 문화의 종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메르스부터 시작해 조류독감 같은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의 확산이 사육 동물들 닭, 오리, 돼지들을 밀집해서 키웠기 때문이고 하나의 용도에 맞춰서 맞춤용으로 키웠기 때문에 저항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면 확장된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녹색 전략의 생태 이야기를 할 때는 선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떠한가?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전환이다, 사회주의의 전환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주에서 생태문명 포럼을 했고 서울에서 전환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생태 문명으로 가자고 제일 먼저 주장하면서 나왔던 나라가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도시를 건설할 때 빗물을 다 받고 재활용하고 원전 없애고,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후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한 중국은 이번 공산당 대회에서 내 놓은 것이 정치,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인데 등소평같은 지도자들이 이미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스승이 이야기한 것이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문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태 문명으로 만들어진 곳의 모델이 어디냐면 쿠바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쿠바는 마지막까지 버틴 적색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수출입 규제로 고립이 된 곳이라 살길이 없었습니다.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장 생필품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대, 전근대, 후기근대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한 실험을 쿠바가 합니다. 쿠바는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대적 의미의 서양의학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의학, 대체의학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술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고 약재를 구해올 수 없으니 약재도 직접 키웠습니다. 또,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으니 그 고단한 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술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어디서든 춤추고 노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시가(cigar)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산업화가 한참 한창이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남진, 나훈아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거기서는 고전문학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가마는 공장에서 오래 일하면 고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적 시민인 것입니다. 생태적인 녹색 전략 안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육성되는지, 그 단면을 쿠바가 보여주었습니다.

최**

이 전략의비교표가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6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고민을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문화 운동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환'이라는 낱말이 열쇳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경향신문에서 연재했던 '세계 지성과의 대화'가 책으로 묶어져 나와 있으니 펼쳐보시죠. 문명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연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까지는 유럽 중심으로 신(神)

중심 세계관이 대세였습니다. 근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 이후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전면으로 부상하였는데 앞으로는 못생명, 범(凡)생명 중심의 세계관에 공감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미래에는 원탁회의를 할 때 물의 대변자가 나와서 물을 대변하고, 공기를 대변하겠다고 해서 공기 대변자가 나오고, 고래를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원탁회의를 비롯해서 의회의 구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 생명체로서의 고래, 코끼리, 고릴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개를 대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하는 것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배인 지혜, 이런 것들 까지도 다 융합하는 시대. 그래서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가 다 융합해 들어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시간이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보아 순차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확장하면서 모아 새롭게 재구성 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생활문화를 어떻게 운동화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운동성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성, 대중성, 운동성 이 세가지를 같이 논해야 합니다. 현장성은 '지금, 여기'라는 말입니다. 대중성은 '한 사람이 열 걸음 가기보다는 열 사람이 한걸음씩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영화 '말모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운동성은 명확한 가치 지향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캠페인과 무브먼트는 다른 것입니다. 캠페인(campaign)도 운동이라고 선거운동한



다고 말을 하는데 무브먼트 (movement) 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은 가치지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큰 그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계관과 사회 전략, 이런 것들이 가치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증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전망으로 생태문명, 활생의 기초가 되는 전일적 세계관을 얘기한 것입니다.

생활문화를 활생문화로 바꾸려면 '자리리타행 (自利利他行)'이 되어야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한 사람은 우리나라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효시인 제가 존경하는 거리 예술가 원효입니다. 원효대사는 무애라는 약기를 만들어 냅니다. 바가지를 활용해서 약기를 만들고 그것을 두드리며 노래를 짓는데 그것이 무애가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것이 무애무입니다. 무애(無碍)라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인데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원효에 대한 것입니다. 원효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자리리타행이 있습니다. 자리(自利)는 내게 이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自), 이로울 리(利), 리타(利他)는 이로울 리(利), 남 타(他)인데, 내게도 이로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혁명론이나 사회운동론에서는 '~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가치가 좋더라도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차적으로 너부터 살아남아라 이것이 천명(天

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리(自利)입니다. 이어서 리타(利他)인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면 내게는 참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가되거나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타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가족 다 좋은데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이름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름다고 판단되는 것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는 더 큰 것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전체를 살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전체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하게 되면 사짜가 많이 끼어듭니다. 정치에도, 혁명에도, 종교에도 사짜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그것으로 다른 잇속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자리리타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어야 하고 자리리타를 해야지만 호혜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호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쌍방향으로 은혜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여'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실 때마다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런 것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종

각의 이름은 '여민(與民)각'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바람이 배어 있습니다.

최**

우리나라 술 문화도 자본주의 시대의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본주의 것도 있고 전근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군주를 위하여, 가문의 위하여 너를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너는 장남이니까, 큰언니니까 네가 희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신을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과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더불어 함께, 내가 동력(同力)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

이미 신라시대 때 원효가 그것을 주창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묻히고 그런 관행적인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적 가르침은 시스템, 사회, 체제를 유지해야 하니까 균열이 나거나 새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여야 변하는데 정도전 같은 인물이 새로운 조선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민과 더불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근대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도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근대적인 문화도 있고 근대적인 것에 사로잡힌 것도 있습니다. 호혜문화는 결국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다투어야 한다면 목검을 쓰라고 합니다. 목검으로 겨루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목검을 쓰되 절대 진검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사회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 여기로부터 비롯됩니다.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동분자라고 이야기 하며 원수라고 하는데 가치는 다 증발해 버리고 증오만 남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더불어 함께, 밥도 나눠먹고 마음도 나누는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눔의 문화, 돌봄의 문

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 '공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共產)이 아니고 공생(共生)입니다. 공유재산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개인 재산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더불어 함께, 조화로워야 한다는 발상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 복지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건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경쟁도 있어야 합니다. 경쟁과 협력 중에 협력은 다 좋은 것이고 경쟁은 나쁜 것, 이런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상극과 상생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이 세계가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도 모순된 존재이고 세계도 다 모순된 것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다른 것인데 상극하면서도 상생하게 되는 것이 음양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립물의 통일'을 모순(矛盾)이라 하는데 그 모순을 직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공유 지식을 쌓아 나가고 집단지성을 구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탁회의나 속의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의 영역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문화입니다. 생활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시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기억과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 지기(知己)들이 있는데 기억과 추억을 공유한 멤버와 그렇지 않는 멤버는 많이 다릅니다.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임머신을 탈 수 있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운용하는 것

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록자들을 통해 유무형의 자산, 유산이 공유되고, 기억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기록보존, 제의 구현. 제의 확산 이런 영역은 거의 정전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제는 정(井)자 인데 가운데는 같이 일궈내는 것입니다. 1부터 8까지는 각자 일군다 하더라도 가운데는 공동으로 일구어 공유 자산화 합니다. 전체 영역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 될 때 생활문화 활동이 활성화로 가는 생활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실천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를 내와야 합니다. 주체를 내오는 방법은 생성 하는 방법과 발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옛사람들의 경우 놀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윗놀이를 한다거나 차전놀이를 한다든지 농한기가 있으니까 이런 놀이들이 많았습니다. 놀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습입니다. 서당, 향교 이런 것이 있었듯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라면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조직이 남아야 합니다. 교육은 조직이고 조직이 있어야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화 공부를 하면 1기 민화 동아리, 2기 민화 동아리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기 교실을 열었다고 하면 1기, 2기 노래 모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조

(自助)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이 되면 스스로 새끼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의 귀재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방법을 배웠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13명이 되면 반으로 갈라집니다. 12명이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섹트, 분파를 만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12명입니다. 12명 이상이 모이면 지방방송이 시작되고 함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3명이 되면 6명, 7명으로 나뉘집니다. 그러면 그 6명, 7명이 12명이 될 때까지 사람을 채웁니다. 그리고 13명이 되면 또 나눕니다. 이것이 셀(cell) 조직입니다. 셀 조직은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가톨릭에서는 청소년활동 때 적용하였습니다. 생활문화 1기로 노래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면 13명이 되면 나뉘지고, 다시 채워 놓고 그냥 두어도 때가 되면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12명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려면 계 모임처럼 돈을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회계가 한명 있어야 하고, 모임에서 지난번 모임을 상기하기 위해서 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회계는 100일만 합니다. 10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서기가 되고, 서기를 100일 하게 되면 대표가 됩니다. 대표가 되면 그 다음엔 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순차적으로 다음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뉘

졌을 때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서 대표, 서기, 회계 일을 하고 또 불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조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노하우를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화전승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내린다, 몸으로 배운다는 뜻입니다. 셀과 셀이 모이면 이것을 유닛(unit)이라고 합니다. 셀 대표들끼리 모이는 원탁회의도 12명입니다. 12명을 넘으면 또 갈라집니다. 미카일 유닛, 라파엘 유닛 이렇게 천사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다만, 이런 모임을 할 때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런 유닛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때 꼭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총대장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꼭지를 만들면 수평적 조직을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계적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고 사회적 욕구에서는 지위가 높는데 있고 싶어 하고 조금 더 가면 명예 욕구가 생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적 한계라고 합니다. 인류는 아주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는 수십만, 수백만년 뒤에 등장할 것입니다. 덜 진화한 사람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물론 눈 밝은 선지식(善知識)이라든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적 한계를 이해하고 다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오래 쪽 한다면 당연히 그 조직은 노쇠하고 퇴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을 만들어 가는 생성의 방법이고 발굴의 방법도 있습니다. 발굴의 방법 중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생활 동아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생활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향토문화학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해설사, 숲 해설사 이런 것도 다 발굴이고 도시 농부, 텃밭, 주말 농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발굴 대상입니다.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학과 연계해서 시민 정원사 양성과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마친 분들을 발굴해 내기도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숲 사랑회 이런 것도 다 발굴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마을 만들기에서 힘이 되었던 많은 것에는 공동육아였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홈스쿨링 부모들, 방과후, 주말학교 하는 분들 이것들이 다 발굴 대상입니다. 이미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협력해야 되는데 의료생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예술 협동조합 이런 것들과 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산파하는 동아리들이 발굴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곳들은 이른바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기획 할 때 한 뼉 정원 가꾸기, 한 뼉 텃밭 가꾸기, 게릴라 가든 이런 것도 등장하고 이것들도 다 발굴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인데 활성화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것입니다. 계모임을 옛날에는 계회라고 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계가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모임으로 다도 하

시는 분들을 통해서 다계를 만들었는데 한방 차, 꽃차를 마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들고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집을 만든다든지 문학예술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모임입니다. 그림책을 읽는다든지 연극이나 영화를 같이 보는 모임, 이런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상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주계, 술을 먹는 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옹 선생님께서 주계를 만드셨는데 꽃필 때마다 술을 마시는 모임을 하셨습니다. 진달래가 피면 진달래로 담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꽃으로 화전놀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주계로 수원에서는 만원모임을 했었습니다. 만원씩 들고 나와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나중에는 70~80명이 되었습니다. 만원씩 모아서 먹고 남은 것은 다 모았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모르지만 많이 모일 때는 돈이 많으니 릴레이 강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각자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전공 중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릴레이로 강의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지식 나눔, 재능기부에 가까운 강좌를 하였습니다. 예술가들의 화수공담(畵酬恭談) 같은 것도 주계였습니다. 얼마씩 모아서 작가를 모셔놓고 작품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품평회라고 조선시대 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발전 돼서 그림 계를 만듭니다. 한 사람당 오만원씩 내고 돈을 모아 열두사람이 모이면 60만원

정도의 돈으로 작가를 모셔두고 강의를 듣고 그 작가의 작품 중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작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미래 투자로 이야기하면 청년작가, 유망 작가의 것을 사두면 후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원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여서 주계 하고 남은 것을 모아서 유네스코 산하단체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NPO, 그린피스를 지원하자고 난민, 유니세프를 지원하자고 하면 주계하고 남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UN에 들어가 국제공무원이 되라고 합니다.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 한 적이 있고 스케일이 있게 통 크게 놀자고 이야기 합니다.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가톨릭 학생회와 유네스코 학생회, 민속연구회 이렇게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이 3개의 단체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지금은 녹색 비평 강독모임을 한다든지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현대물리학 공부 하는 모임 이런 식으로 다계, 주계를 만들고, 모임입니다. 그리고 축제도 역시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본 최고의 축제는 거저 축제입니다. 거저 축제는 거저 나누는 축제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일 년마다 먹고 남은 것이 쌓이면 일정한 날을 잡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증여인데 증여(贈與), 선물의 뿌리는 거저 축제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 모여서 술 한잔 먹자. 올 때 자기 먹을 거

한 접시씩 해 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감자전, 어떤 집은 김치전, 과일. 그것만 모아 놓아도 그대로 가든파티가 되는 것입니다. 뷔페 식으로 차려놓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김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여서 다 같이 담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축제입니다. 거저 축제를 가게 되면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다 남은 옷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책 거저 축제라고 하면 그림책을 가져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전 되어 가는 것입니다.

0세 부터 100세 까지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남녀노소가 함께 읽는 모임도 있고 북유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장난감 만들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개질로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을 팔아주는 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난감을 팔아주는 사람이 20%는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80%의 수익을 갖는 방식으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장난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는 수제 장난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남는 것들이 있으면 모아서 난민 어린이들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발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더불어 할 수 있는 놀이, 노래, 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활동을 들여다보면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텐트 칠 때 매듭을 어떻게 묶어

야 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지향은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천 문화원에서 펼친 노거수(老巨樹)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곁에서 수백년 살아가는 나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들, 지역사회 미래자산이 될 만한 것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골목 박물관도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액션플랜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장성, 대중성, 운동성을 가미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생활 문화 자체를 숙성시켜서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치 증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

그러면 지금 생활문화 사업이라 하면 생활예술 동아리사업으로 도식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활예술은 생활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생활문화 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범주의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부터 시작해 생활양식 전체를 일컫는데 트렌드를 연구 하는 사

람들은 단기와 중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30년 이상 지속 되는 트렌드를 문화라고 합니다. 넓게 이야기해서 생활문화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고무줄입니다. 다 나올 수 있는데 다 담을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뽕짝을 부르고 논다고 하더라도 뽕짝을 막 부르는 사람과 그 뽕짝 노래의 작곡가가 누구인지 작사가가 누구인지 어느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 연구하기 시작하면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야기하게 되고 인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심화하는 것입니다.

최**

**보통 문화원에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그 사업으로
지역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
부르기식으로 노래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생활문화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노래에 대한 연원, 역사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은 생활문화
사업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 계속 강조했는데 과학자나 인

문학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 CoP 지원사업이 등장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모임에 대한 지원 영역을 따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단위에서 더 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시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전술한 모임을 꾸리건 담론을 생산해 내건 이런 것들로 예술적, 문화적 산출을 내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재생과 마을 만들기라는 하드웨어적 중심에서 서서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데 핵심에는 휴먼웨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문화재단 있어도 재단
구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의 지원 구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역의
현장에서는 온도차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조(自助)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조모임에서 1차는 지원금으로 하는데 2차 뒤쫓아 가는 것은 계 모임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식당에 가서는 쓸 수

있는데 주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도 모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공기금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술 같은 것들은 자조 모임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화 예술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 질문의 종류도 이것저것 질문 하셔도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획자로서 자리리타(自利利他)를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기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20년 동안 대항적인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탈춤, 마당극, 풍물, 미술비평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기획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基金)입니

다. 기금을 뜻맞는 이들과 벌어서 만들었습니다. 연하장, 달력, 생활한복 등등을 만들어 팔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는 광대 계열이기 때문에 소극장 앞에서 양초와 노래 테이프도 팔았습니다. 별의 별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예술가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았더니 문화예술진흥원이 있다하더군요. 때마침 문화재단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즉 기금, 마련과 운영을 위해 스스로 치수(治水)자가 되고자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적으면 가물어 집니다. 균형감각 있게 종다양성을 존중하며 적정량의 물이 논과 밭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술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단이었습니다. 2003년 경기문화재단 공채 2기로 들어와 그때부터 자리리타행을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녹색전력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생명의 패러다임이 중시되는데 이것과 같이 갈 때 생활문화나 생활문화운동성의 흐름도 녹색

전략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녹색 전략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녹색만 가지고 깔아 놓으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녹색은 배면전략, 바탕전략으로 까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에 피는 것은 빨, 주, 노, 파, 남, 보 등 여러 빛깔이 꽃피듯이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는 현재 빈집들이 많은데 원하면 빈집을 열어 주고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도시로 가면 도시농부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의미 있는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 박물관에 와서 사무실 옮길 때 큰돈을 쓴 것이 있습니다. 농원, 화원에 연락해서 텃밭들과 함께 꽃 화분을 많이 들여와서 사무실에 놓았습니다. 최근에 에코 아프리에도 바꿀려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감각, 감수성 위에 어린이교육이 행해지길 바랍니다. 교육재료도 콩이나 팥, 나무, 솔방울, 웅기 흙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로만 가게 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일각에는 녹색 파시즘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도 중시 하면서 동물권도 신장되게 하며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나쳐서 인간 혐오증으로 가게 되면 녹색 파시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너무 많아 인류는 지구별의 암갈은 존재이고 그러니 인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류 다수 절멸 프로젝트 같은 것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80%는 줄이고 20%만 남기자, 이런 것이 파시즘적인 사고입니

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전략은 배면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여러정당들이 있는데 저는 녹색당 의원도 최소한 몇 %는 의회에 진입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기, 물, 흙, 야생동물 이야기도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생활에 모든 부분들이 모두 소비의 형태로 치환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생활문화 하니까 더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아리가 필요하면 자기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라 돈을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유달리 생활문화 부분에서만 더 확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부상조 문화, 호혜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결혼 한다

고 하면 부조하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조의금을 냅니다. 누가 대학 들어갔다고 하면 옛날에는 종친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무늬만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마지막 남은 가장 최하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파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공동체는 한가지 동(同)인데 이런 것은 드뭅니다. 취향 공동체도 공동체가 아니라 공통체에 가깝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점점 정도의 교집합이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향유하고 생산하는 문화를 일구는 것이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재생하는데 중요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떤 면에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운영할 때 커뮤니티의 성격 자체가 옛날 같은 전인적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 유한한, 조건부 커뮤니티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관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체를 희생시키거나 다수결의 원리로 누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자리리 타행이고 호혜적 의미의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그것조차도 파시즘을 일으켜내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커뮤니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든지 언제든 위험한 커뮤니티로 전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지혜를 모아 운영해야 합니다.

오**

**정부에서도 계속
생활문화를 지원해오고
있고 생활문화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10주년이 되었는데
정책적으로도 어떤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적 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찾아 하기 시작했는

데,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쓰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5일 근무인데 출판계 쪽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출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변화해가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 요구들이 생겨나면 가족과 직장도 변화합니다.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 메인 잡(main job)이 있고 서브 잡(sub job)도 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메인 잡은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서브 잡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한다든지 문화상품을 개발해 온라인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꽃차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브잡이 메인잡보다 수입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취향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독서 모임. 그런 것들이 지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형이 바뀌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적 요구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미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삼십 년 후에는 로봇들이 대거 들어와서 단순 생산직 업무를 하고, 고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일자리에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단순 사무직은 아마 다 로봇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인구 90%는 할 일이 없으니 90%를 인류 다수 절멸 프로젝트로 없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확대 재생

산인데 생산을 계속하려면 상품이 판매되어 그 이윤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대중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해 본 놀이입니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해서 다 따면 개평이다 해서 다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야지만 놀이가 다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가난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최고의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 나옵니다. 제가 10년 전 스위스에 갔을 때 7만불 소득 이상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이야기가 나왔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직장 최고위급의 월급을 얼마 줄 것인지, 월급 상한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사원 월급의 몇배로 최고위급 월급을 줄 것이냐, 그것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문화예술 동아리, 신경 쓰지 않았습다. 이제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생겨나고 이것들이 다 표발입니다. 옛날에는 사회 변혁이 민란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지금은 기본 욕구는 다 충족이 됩니다. 현재는 미술 클래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교양 있는 시민들, 다 시말해 중간층이 역사의 향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환경이 중요합니다.

윤**

생활문화의 운동성, 문화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세계관, 조직 운영 방식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모임이나 이런 구체적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라는 것이 이른바 자유학교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발도르프'는 담배공장 이름입니다. 자유학교를 만들어보라고 공장주가 건물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교육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느 곳, 어디에 가든지 그가 속한 곳에서 당연하는 과제, 난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예술을 만들어 내거나 생활문화운동을 할 때는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풀어야 할 것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일 때 더 힘을 갖게 됩니다.

다. 아까 ‘박애’이야기를 했었듯이.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에 보충,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꿈단지’에 담고 이것을 씨알로 해서 운동을 펼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박**

젊은 세대가 느끼기에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특히 생활문화도 문화인데 건잡을 수 없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틀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사회에서 생활문화를 공부하다보니 철학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활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땀, 요즘말로 명언을 땀 이라고 하는데 땀이 ‘자리리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 트렌드에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자리였습니다.

한 갑자(甲子)를 지나고 보니 푸른 젊은 시절이 얼마나 찬란한 시대였는지 절감합니다. 그 때 별 의별것을 다 해보았는데 고(苦)와 락(樂)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고(苦)의 깊이와 그것의 반대인 락(樂)의 깊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 고락을 무모할 정도로 경험 할 수 있는 시기가 젊은 시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때 80년 5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찬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공동체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영혼과 뜻을 가진 사람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들을 그때 만나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가 지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대는 역설적으로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락의 한가운데 초대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동력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도 전율이 흐릅니다. 신중해야 할 때는 영혼이 무거워 질 때입니다. 옛말에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누구냐하면 딸린 식구가 많은 사람들, 내 한 몸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 자식을 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 영혼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속의민주주의 이야기 할 때도 1인 1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수차례 신중하게 숙고해서 결론을 낼 것임



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집단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중하시고 푸른 젊은 시절부터 자리리타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오늘 들은 것 중에 상생, 놀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오**

저는 생활문화에 있어서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생활문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호 호혜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가치 증식이 일어나는가'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기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저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습니다. 책 한권을 읽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배**

생활문화 말씀하신 것 중에 일과 일 이외에 생활문화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문화원에 돌아가서 생활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문화예술로 일구어내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왜 다시 공동체를 호명하는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지역사회 곳곳에서 새로이 다시 공동체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족공동체조차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것조차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농어촌의 마을조차 지역 공동체라 부르기에는 무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증식을 보장하고 강화해주는 현대 문명은 기존 공동체의 해체 또는 희생 위에 성립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경향은 그러할 것입니다.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같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거버넌스 조직으로 나온 '의제21'은 지구 공동자원의 고갈을 염려하며,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모든 못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자본과 자본의 힘에 기댄 권력

에 이끌려 지속가능성보다 발전(개발)에 기운 듯 대중들에게 비취집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보다 적극적인 공생 전략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불러내는 공동체는 공생전략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기에, 이것은 기존 공동체의 전환 또는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로 지역 공동체, 마을 일구어내기

우리 사회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지역 공동



체, 마을은 도시형이건 농어촌 형이건 유사한 발전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로 마을을 새롭게 일구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의 칠보산 마을과 서울의 삼각산 마을, 성미산 마을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시작은 대부분 육아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모여 공동육아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율력하여 만들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며 아이들에게 온전한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학부모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방과후 교실, 계절학교, 대안 초·중등학교를 생생해 내왔습니다. 어린이집과 대안 초등학교 학예회는 마을에 술잔치, 마을 문화예술제로 확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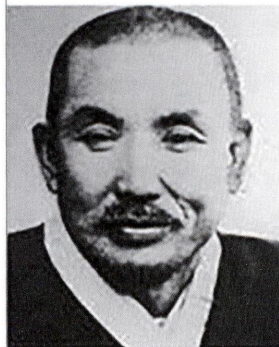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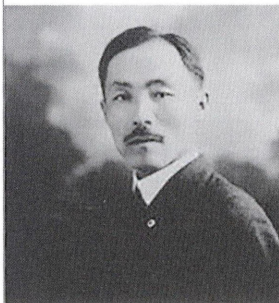
그리고 외연의 확장과 함께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마을극장,

마을카페가 생성되었으며,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녹색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마을은 생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성되어 상호 씨줄 날줄로 엮이며 마을을 튼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찾은 마을 만들기의 본배

지금 우리가 일구고 있는 문화예술로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전범은 백여 년 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펼치셨던 이상촌 만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우리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셨던 세 분의 선생님은 지금 여기 이곳을 새롭게 일구어 튼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전국 곳곳에 모두의 바람과 꿈을 담은 이상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촌은 자치와 자급의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이상촌에는 제일 먼저 마을을 일구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기르는 학교를 세우고 교원과 학생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하고 공동 판매 또는 공동구매할 협동조합들을 내오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기관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마을에는 공회당, 목욕탕, 운동장, 우편국 등이 자리잡을 계획이었고 200호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여 교육조직과 노동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안전하고 유쾌한 삶을 사는 마을을 일구고자 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07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역시 같은 해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으며, 오산학교 초대 학교장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선생님은 이상촌 운동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상촌 운동은 훗날 북간도, 연해주로도 펼쳐 나아갔고 반백년 후 대한민국에서는 세 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원주의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대성학교의 정신을 이은 대성학원을

세우시고 신용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펼치셨으며, 홍성의 이찬갑 선생님은 오산학교의 정신을 이은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생 홍성에서 이상촌 마을 일구기에 매진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문화 유전자에는 무의식 깊이 이상촌이 내장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경로의 모색

최근 육아·교육공동체와 연계된 마을만들기와 다른 경로의 지역공동체가 생성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인의 문탁(問絜)네트워크이며 하나는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입니다.

용인의 문탁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인문학공동체이며, 인천의 시민문화예술센터는 시민들의 생활예술공동체입니다.

문탁
net work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
문탁네트워크

대표 : 이소희(문탁)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031 261 5033



문탁네트워크는 2009년 가을, 함께 공부하며 삶의 비전을 찾아보자고 의기투합한 몇 사람이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공간'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이웃들과 함께 공부하며 친구가 되고, 매일 밥을 지어 먹으며 식구가 되고, 1년에 한 번 인문학축제를 열어 용인 지역의 시민 인문학공동체를 일구어냈습니다. 문탁네트워크의 동력은 서로 묻고(問) 함께 연마(琢磨)하는 공부와 밥과 우정의 힘이었으며 운영 원리는 선물의 순환이었습니다. 초기 시설비와 월세는 각자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회비를 내어 충당하면서 서로에게 터전을 선물하고 공부를 선물하자고 마음을 모았으며, 선물은 선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영적인 힘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신뢰하였다 합니다. 문탁에서의 일상인 청소, 밥, 세미나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개인적인 이해타산의 관점이 아니라 순환의 관점에서 연결 짓는 관계가 가능하였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합

니다. 현재 문탁(공동대표 이희경)은 관계가 확장되어 마을작업장, 농사작업장(텃밭)을 갖추었으며 마을 화폐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문화예술센터는 2004년 시민단체 활동 경험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 몇몇이 모여 시민 중심의 문화수용자운동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비롯했습니다. 문화수용자운동은 월 1만 원씩 회비를 내면 그걸 모아 공연을 가져와서 함께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만에 500명의 회원을 모았고 첫 공연에 1,600명이 왔다고 합니다.

문화수용자운동을 계속하자 양질의 공연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자 문예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소극장과 연습장이 필요해 시민구좌를 만들어 건립기금을 모았다합니다.

그래서 좌석 90석의 민립소극장 '소풍'이 만들어지고, 동아리 전용 연습공간 놀이터 1호점(45평), 놀이터 2호점(4층 전관) 그리고 회원들의 뒷풀이장





소를 겸한 카페(저녁엔 주점)가 마련됐다합니다.

현재 시민문화예술센터(대표 임승관)는 1,200여 명의 회원, 주말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고정적으로 공간을 찾는 이들만 400여 명, 10여 명의 상근자가 있으며 회원들을 문화바람이라 통칭하는데 생활예술바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놀이터 공간을 사용하는 회원, 공연바람은 5장의 프리티켓을 받는 회원, 선물바람은 공동구매한 지역예술가들의 소품을 선물로 받는 회원입니다.

계(契)로부터

본보기가 될 만한 문화예술로 지역공동체 일구기의 사례에서 비추듯 새로운 공동체의 초창기 주체 형성의 밑바탕에는 우리문화 깊이 내장되어 있는 계(풍류계, 대동계)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 수원 행궁 건립시 참여하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풍류계를 조직할 때 달마다 피어 나는 대표적인 꽃 아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주거니 받거

니 하며 시서화(詩書畵)와 가무악(歌舞樂)을 즐기시는 주계(酒契)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논하며 즐기는 풍류계에는 다계(茶契)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풍물패가 있어서 대보름이나 단오, 한가위 날에는 걸판지계 대동 춤판과 놀이판이 펼쳐졌는데 이를 뒷받침 한 것은 마을 두레나 마을 대동계였다 합니다.

계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무궁변용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로 변용되었을 지라도, 계의 기본은 십시일반(十匙一飯)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오는 것이 다르다하여도 공동기금을 모으고, 필요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과 건물을 갖추는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 활동도 문화예술로 감싸안아 꾸셨습니다. 개체 개체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며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和)를 이

루기 위해서는 악(樂)으로 대표되는 풍류, 예술을 중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을 종종 공동체 활동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문화예술은 공동체 활동의 핵심이자 골간(骨幹)입니다. 문화예술로 환대와 배려의 공동체,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호혜와 살림의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역사는 늘 정치선행(先行)론이 득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문화선행(先行)론이 보다 중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곳의 동력은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미래의 그것을 이곳에서 선취하여 맛보는 것으로부터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고갱이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문화의 맛봄과 즐기만이 동인과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미래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확장되는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로 지역 공동체 일구어내기와 만나질 수 있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커뮤니티 아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아트는 공공예술, 퍼블릭 아트가 진화한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성된 문예동아리가 서로 손잡고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자 한다면 도전해 볼만합니다. 전문예술단체가 마을을 일구는데 한몫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공동체와 울력하며 이 프로젝트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상호 배려와 협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녹색지대의 사람들이라 일컫습니다. 마치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지대의 사람같이, 이들은 야생적 사고에 밝은 사람들이며 축이 발달되어 있고 센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





지자들이 여전히 많으며 사회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상은 자유분방하며 전위적입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개방성의 척도, 또는 창조적 진화 가능성의 지표로 이들 예술가들의 존재와 이들이 예술하기 좋은 곳인지가 가늠될 수 있습니다. 녹색전략이 구사되는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에서는 이들이 존대 받습니다. 청색 전략이 구사되는 곳에서는 이들을 돈을 주고 고용한 듯 제어하려 합니다. 적색 전략이 구사되는 곳에서는 이들을 문화선전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가치지향 중심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에서

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할 때는 예술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예술 내적 논리로 공진화가 가능하도록 촉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술마을, 예인촌 일구기에 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시리 마을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특색있는 예술마을이 생성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해마다 한 곳씩 옮겨하며 한 지역에 집중하여, 전국 의 공동체 기반 예술 활동 유경험자들이 모여 커뮤니티 아트를 행하고 커뮤니티 아트 담론을 논하는 규모있는 아트 프로젝트(페스타)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참고도표 <전략의 비교>

	청색 전략	적색 전략	녹색 전략
세계관의 기초	사회진화론	사적 유물론	전일적 생명관
중심가치	자유	평등	박애
중심부문 1	시장	국가	사회
중심부문 2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목표	발전	진보	창조
주체	금융자본 · 산업자본가	노동계급	다중
사회경제적 목표	성장	분배	균형
사회경제적 원리	교환	재분배	호혜
경제학적 중심점	효용 · 효율	노동(생산)	순환
자연에 대한 태도	개발	개발 · 고려	공생
조직	대중	결사체	네트워크
리더쉽	기업가형	혁명 · 정치가형	예술 · 종교가형
국가상	시장국가	복지국가	자치제 연방

* 생명의 패러다임과 호혜사회의 논리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요섭 부소장)의 발표문에 따라 다듬었습니다.

제 15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주관 : 수원 의제 21, 푸른 경기 21)

8대 분야 주제별 워크숍

공동체 문화

(주관: 아트나온문화예술협동조합)

2013. 9. 5.(수) 9:40~12:40

양원모기초발제문

활생(活生)문화로 나아가는 생활문화

양 원모



학산마당극놀이 2016 퍼레이드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

바람이 선선한 초가을이 되면 인천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한 ‘학산마당극놀이’ 마당 예술동아리 잔치를 보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인천으로 향한다. 삼년 째다. 삼십여년전 푸른 젊은 시절의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다.

탈춤의 신명에 이끌려 마당 판에서 춤추고 노래하였는데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나는 창작 탈춤과 마당극을 전문으로 하는 놀이패 ‘한두레’에서 활동하였다. 그후 미술동인 ‘두렁’과 함께 인천으로 옮겨와 호인수 신부님의 도움으로 주안 5동 성당에서 문화한마당(문화학교)을 열

었고 그곳 후배들과 함께 놀이패 ‘한광대’를 결성하였다.

사물놀이와 노래, 춤,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 주안역 앞 건물 한 층을 빌어 문화공간 “쑥골마루”를 열고 놀이패 ‘한광대’, 노래패 ‘산하’, 그림패 ‘갯꽃’, ‘일손나눔’과 손을 맞잡고 갈래별 크고 작은 예술동아리를 이끌어내며 ‘우리문화사랑회’를 꾸렸었다.

지금도 인천에는 제 신명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아리가 많다. 특히 인천 남구는 학산문화원과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이 지역문화 플랫폼이 되어 생활예술 동아리 공동창작활동과 발표를 안받침하고 있다. 경기도에도 생활예술동아리는

많다. 특히 성남은 15년 남짓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며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생활예술 진흥의 본(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생활예술이란 말이 생경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생활예술이란 명칭은 순수예술과 대비되는 실용예술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러다가 전문예술과 대비되는 아마추어 예술을 생활예술로 명명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민 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예술을 생활예술이라 칭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문화지형이 반영된 듯하다.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 이것은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자기다움을 담지(擔持)한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갈망이 충족되어야 존재 의의를 느끼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자긍심을 갖고 삶에 응할 수 있는데 생활 속 예술, 예술 품 안에서의 생활은 삶을 넉넉하게 하고 관계를 도탑게 한다.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

경기도는 현재 생활예술동아리 육성과 생활문화 공간 조성에 열심이다.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와 국가단위의 진흥법도 마련되었으며 예산과 지원 기관도 있다.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으며 생활문화를 진흥하는데 함께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예술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나설 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은 생활예술의 뿌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탄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활예술의 내용과 형식이 풍성해지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을 갖춘다. 달리 말하면 공동체에 기반한 생활예술이 되어야 지지자, 후원자를 끌어 모으며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문화창조 역량을 귀히 여긴다. 그리고 예술로서의 이야기 주권 회복과 행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공동체의 의제·이슈 또는 문제·과제에 주목한다. 공동체의 관심과 이해(利害)에 기초한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이해 당사자들이 행하는 예술이기에 공동체 안팎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읽으며 문제제기형 또는 문제공유형 예술의 형태를 띤 것이 많다. 예술을 통해 문제인식을 심화하고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문제를 타개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의 역사는 깊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풍물패가 있었다. 정월 대보름과 단오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풍물굿이 펼쳐졌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돌아올랐던 탈춤 부흥운동 덕에 배움공동체인 대학에서도 탈춤 동아리와 풍물 동아리가 우후죽순 돋듯

생겨났고 1980년대 중반에는 노래 동아리와 그림 동아리가 전국 대학으로 넓게 퍼져나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단의 직장공동체에도 수많은 풍물 동아리와 노래 동아리가 생겨났고 신앙공동체인 천주교와 기독교 교단에서도 탈춤 동아리, 풍물 동아리가 생겨났었다. 법당 안마당에서는 전통혼례를 창조적으로 변용한 현대 민속혼례가 올려졌고, 성당에서는 국악 반주의 미사가 왕왕 집전되었다. 교회 안에서 마당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공단 작업장 외벽에는 근로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그려졌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해맞이 그림 연하장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방송 매체의 도움 없이도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창작 민요와 노래 동아리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입과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배움공동체, 직장공동체, 신앙공동체 모두가 생활예술 동아리를 키워내며 대항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실험 속에 함께 있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방과후 학교, 계절학교,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인문학공부방, 마을 카페, 공방, 소극장, 마을 예술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2010년대 공동체 기반 생활예술은 지역재생과 마을 디자인, 재래시장 리뉴얼, 문화공간과 예술거리 조성, 그리고 텃밭과 공원, 숲 등 도시재구성과 새로운 생활양식 태동을 주목하고 있다.

생활문화 ?!

지역사회 시민문화의 일상을 이루는 생활문화는 시민들의 자각이 함께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으며 변성(變性)없이 문화향유는 되겠지만 새로운 문화창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로에 서 있다한다, 과소비, 난개발, 지구 토양 오염, 바다 쓰레기 집적, 밀림과 숲의 축소, 탄소 배출 과다, 지구 해수면 상승 등등으로. 지속가능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생활문화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세대가 너무나 큰 부담을 지어야하고 그들에게 전가될 고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세계 지식들은 경고한다.

우리의 생활문화,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나? 그리고 생활예술은 어떻게 진작시켜야하나?

저비용, 저에너지 생활예술을 찾아내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젊었을 때 동그랗게 둘러앉아 통기타와 하모니카 만으로도 훈훈하고 정겨운 시간을 갖었던 것을. 그리고 북 장고 뽕가리 징, 사물만 있으면 온 마을 사람이 신명난 춤판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을. 무대없이도 마당만 있으면 연극이 가능했던 시절을. 그들이 청소년이었던 시절에는 유독 문학의 밤이 많았다. 시집

을 사서 읽고 맘에 드는 시를 골라 낭송하는... 어린 시절에는 종이인형과 종이옷을 직접 그리고 오려 입히며 소꿉놀이를 했고 동네 골목에서는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했으며 구슬치기, 딱지치기, 술래잡기, 다방구(다살이)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을.

적색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전환한 쿠바에서는 지금도 시가(cigar: 엽권련)를 마는 공장에는 문학과전을 읽어주는 낭독가가 있어 노동의 무료함을 이겨내게 하는 한편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 책을 읽어준다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문화의 본이라 할 만 하다.

십시일반(十匙一飯)하며 모든 공동기금의 문화를 되살리자.

예전에는 마을 대동굿을 펼칠 때 집집마다 지신 밭기를 해주며 굿전과 쌀을 추렴하였다.

이때 내준 쌀은 집집마다 십시일반하며 모아 놓은 것이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공동기금을 조성할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 있는 전통이었다.

십여년 전 수원에서 만원계를 꾸린 적이 있다. 1인당 만원씩을 내고 모아 달마다 한번씩 술자리를 갖는 주계(酒契)였다. 의정부에서는 차를 마시는 다계(茶契)를 하는 벗님도 있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고 남는 돈은 모아 적립하였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것을 종자돈 삼아 일일 주점

을 열어 공동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크게 상부상조하는 일에도 쓰였고 공동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도 한몫하였다.

더불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일구자

옛 기록을 보면 우리겨레는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기는 민족이라 하였다. 함께 노래부르기, 다 같이 춤추기를 일상에서 되살릴 필요가 있다. 같이 부르기 좋은 노래모음집을 만들고 광장에서 포크댄스를 배우고 더불어 춤을 추는 기회가 잦으면 좋겠다. 안산 원곡동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면 중국에서 건너온 재중 동포들이 이삼십 명씩 모여 춤을 즐긴다. 정신 건강, 몸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여러나라 공동체놀이를 보급하여 더불어 즐기며 친구를 사귀게 하고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였듯 실외 외벽에 거울벽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춤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친자연 문화를 일으키자

공동운영 텃밭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다.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이웃도 사귀고 산출된 것들은 서로 나누며 땅도 살리고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살려낸다.

유럽에서 실험 중인 “나우토피아(Nowtopia)”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그래피티 아트

서는 '가이아의 정원'이 실험되고 있다 한다. 다년생살이 곡식, 약초, 화초, 과실나무를 섞어 심어 조성한 정원으로 일명 "먹거리 숲"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공공원의 일부를 분양받아 실험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또는 개인이 땅을 구입해 조성하기도 한다. 재래종 씨앗을 모으고 나눈다. 가이아의 정원의 모델은 동아시아의 옛 정원이었다고 하는데 오랜 종가집 앞 마당과 뒤뜰에 조성된 정원이 연상된다.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겨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 속에서 자연미를 흠뻑 즐길 줄 알았던 매우 슬기로운 민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 계인들이 뜨악해하는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어 스카이라인을 훼손한지 오래되었고 그속 한 자연의 미감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친자연 문화를 되살려 생태적 미감과 미의식을 회복하였으면 한다.

활생(活生)의 생활문화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문화일

반의 핵은 사회구성원이 그들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길눈이가 되줄 세계관이다.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앞두고 프란체스코 교황은 새로운 세계관, 신앙관의 기초가 되줄 바탕 학문으로 "온전한 생태학"연구와 토론을 제안하였다. 현존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구성한 사회에서는 고대와 중세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 대세였으며, 근현대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다가올 문명은 이를 넘어 설 수 있다. 범생명 중심의 세계관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동물들이 너무도 많다. 공장식 축산으로 전염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한다. 동물들이 가축이라하더라도 사람의 밥상에 오르기 직전까지는 그들도 짝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그들 나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하는데 사람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생산성 향상과 수지타산만을 따지며 그들을 죄수보다 못한 취

급을 하며 생지옥으로 내 몬 것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
리 인류의 업장(業障)이 깊어
메르스 사태같은 돌이킬 수 없
는 재앙이 다시 올 수도 있다.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조
선시대 건강식 같이 단백질 섭
취를 균형있게 취할 필요가 있
다. 이것 또한 생활 문화와 관련
된 것이다.

4년 전 인도의 환경산림부는
돌고래를 '비인간인격체(non-
human persons)'로 보아야하
며 이에 따른 고유한 권리를 지
닌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돌고
래를 포획하여 공연목적으로
길들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
렸다. 고래류는 바다를 삶의 근
거지로 하는 고등생명체이며
그들 또한 그들끼리의 언어를
구사하며 사회생활을 한다. 최
근에는 코끼리 또한 언어생활
을 한다는 것이 코끼리 언어연
구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근래 식물의 뇌에 관한 책들이
여럿 소개됐다. 식물 또한 만만
치 않은 존재들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
주의, 인류 종우월주의를 포기
하고 모든 생명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금씩 늘
어나고 있으며 범생명 중심의
세계관에 공감을 표하는 분들
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미 세
계관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는 것이다. 현대 안에서 현대를
넘어서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의 지도 역할을 하
는 역사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등장이다. 빅뱅부터 현재까지
137억년의 우주사와 46억년의
지구사 그리고 35억년의 생명
의 역사를 다룬 서적과 영상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
부는 빅 히스토리 연구와 보급
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이론물리학자들은 초끈이
론을 심층연구하다 M이론을
내왔는데 11차원의 세계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이라
는 차원을 바탕으로 깔고 10차원
의 공간을 밝히고 있다.



2015 자비의 회년 _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을 수놓은 동물들
'우리를 지켜주세요'

점차 가까워오고 있는 지구촌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확장된 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주고 받는 공유지식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빅히스토리로 쓰여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의 생활문화는 공진화하여 2020년대에는
활생문화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생(自生)하고 상생(相生)하며 공생(共生)을
희구하는 바람은 자연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

며 못 생명 모두를 살리는 활생(活生)의 생활문화를 지구촌 곳곳 지역사회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활예술과 이를 감싸안은 생활문화도 숙성하면 활생문화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일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슬기롭게 오늘을 돌보는 것이 생활문화정책의 바탕이 되길 바래본다.

2017. 10.3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
경기문화저널 2017년 겨울호 투고

여 백

COMMUNITY PRACTICE

공동주제 연구

1. 생활문화와 일상 _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
2. 생활문화와 개인의 욕망 _ 개인의 욕망과 공공기금 지원
3. 생활문화와 문화운동 _ 생활문화와 운동성 연결 짓기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제 1장

들어가는 글: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강수택, 민음사, 332쪽)』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위해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편집자 주 -

01

약 1세기 전 서구인들은 낙관적 역사관이 지배하던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 대전, 공황, 전체주의 등 엄청난 재난을 겪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간 시대의 낙관주의에 대하여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된 정신을 〈외면화된 합리주의〉에서 찾았던 에드문트 후설은 철학을 비롯한 제 학문이 바로 삶의 의미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모든 논리 및 학문의 의미 기초가 되는 ‘생활세계’

를 학문적인 논의의 출발점인 동시에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새로운 세기 전환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후설의 이러한 문제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쨌든 일상생활의 문제는 19세기적인 합리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학을 지배해 온 학문 경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반성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장 풍부한 이론적인 차원을 제공하였다.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업적이 많이 나왔다. 또한 일상생활의 관점을 특별히 중시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응용적인 연구, 특히 경험적인 연구의 업적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심화,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사회학의 연구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물론, 일상생활문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의 증대 현상이 유독 사회학 분야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철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02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학문

적인 관심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논의는 다만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학문적인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동 혹은 생산 중심의 패러다임이 '생활세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버마스에 의해 가장 뚜렷이 제기되었다. 그는 기존의 노동이나 생산 중심의 논의가 현대의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에 가졌던 것과 같은 타당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주체철학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비판한 후 사회 이론을 '소통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현저히 증대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논의들이 과연 사회학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일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큰 의의를 갖는다.

- 이 관점은 경제의 논리, 정치의 논리 등 특정한 활동의 논리 대신에 총체적인 생활의 논리를 강조하며 결국은 생활의 주체인 인간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인 관점이다.

- 이 관점은 인간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영웅, 전문가 등 비범한 사람의 생활 대신에 시민, 민중 등으로 불리는 범상한 사람, 보통 사람의 일상

생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의 의미를 강조한다.

- 이 관점은 사람들의 생활을 외부에 있는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참여자 개인들 스스로의 관점으로부터 파악하려고 한다.

- 이 관점은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인의 주관성을 정태적이거나 유아론적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동태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 일상생활의 관점은 학문 영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엄격한 경계를 넘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민속학, 문학 등 관련 학문들과의 종합적인 여구, 즉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관점에 대한 비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전체 사회 혹은 역사 자체보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자체와 이로 인한 사회 현실 혹은 역사 현실의 변화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사회적 환경, 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바른 인식이 불필요하다거나 경시되어도 된다는 태도 역시 마땅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03

이 책의 목적은 사회학의 영역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는 데 있다.

제 2장

일상생활의 개념과 일상생활론의 역사

01

일상생활의 개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일상〉이라는 개념의 다양한 용법들을 보여줄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그가 추적한 개념은 단순히 〈일상〉 개념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관련 개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일상의식, 일상생활, 일상생활세계 등)

이처럼 〈일상〉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채 상이한 의미들을 지시한다고 하면, 과연 이 개념이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쓸모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엘리아스는 이 개념이 오늘날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 주목한다.

이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통일된 이론적인 기획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적 기획들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전통이나 전망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일상 논의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도 서로 달랐으며, 〈일상〉에 대한 개념 규정도 서로 달랐던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에서 〈일상〉의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과 〈생활〉의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이 구별되기도 한다.

02

서구에서의 일상생활론의 역사

1. 근대 이전 서구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의 의미

* 고대 희랍 사회

- 철학적인 생활과 달리 부, 명예, 통상적인 맛, 세속적인 사랑 등 낮은 가치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몰두해 있는 영역 (부정적 평가)

↔

- 보통사람들의 생활에 결부. 인간적인 것의 의미가 있는 곳

* 기독교의 영향

- 영적이고 영원한 생활과 대조되는 속되고 육적인 영역. 부정적. 부차적

↔

- 기독교적 사랑의 의무가 마땅히 실천되어야 하는 영역.

2. 근대의 성립과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

계몽주의의 등장 및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은 대중의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화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서구 사회의 현실을 대중의 일상생활이 전보다 한결같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스레 무산 대중의 궁핍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마르크스, 엥겔스 등이 가졌던 관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무산 대중의 궁핍한 일상생활을 새롭게 변혁시키려는 실천적 의지와 그 변혁 방향의 제시에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중요한 관심 주제로 부상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상생활 담론이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지적인 전통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제기된 것은 트로츠키에 의해서였다. 그는 일상인으로서의 대중이 자신들의 일상과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문화 영역에서의 변혁을 강조했다.

- 안토니오 그람시 / 콩트 / 에밀 뒤르캄 / 헤겔 / 마르크스 / 게오르크 짐멜 / 베버 ...

3. 학문적 일상생활론의 성립과 상이한 연구 전통들

그렇지만 이제까지 소개된 어떤 사람도 학문적인 수준에서 일상생활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체계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데에는 20세기 전 반기에 발생한 세계 대전과 전체주의 체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인류가 경험하였던 사실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후설에 의하면, 삶의 의미가 공허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서구의 합리주의가 걸어온 잘못된 길은 일상생활의 총체적인 파괴를 야기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그 의미로 가득 채워진 (일상적) 생활세계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세계야말로 모든 논리, 모든 학문의 의미 토대이므로 이 문제가 학문적인 토론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후설의 '생활세계 철학'은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대해 학문적으로 주목하게 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에는, 서구 산업 사회의 지속적인 진전과 함께 이루어

진 노동 시간의 단축, 소비 능력의 향상, 대중 매체의 발달 등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슈츠_일상생활세계론_미국의 실용주의자들의 이론들을 접한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세계론으로 발전시킴

- 고프만_〈일상생활에서의 자아 표현〉_일상생활의 대면적인 상황을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경험적인 자료로서 연구

- 르페브르_마르크스주의적 이론 전통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

- 카렐 코직_하이데거의 개념들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다루어서 〈일상생활의 형이상학〉을 구성

- 게오르크 루카치_일상생활과 예술의 관계를 반영 이론의 맥락에서 다루는 데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사유의 구조를 분석

- 하버마스_소통 행위 이론_생활세계의 기본적인 특징을 소통적 합리성 개념 및 소통 행위 개념으로써 설명하고자 함

⇒ 일상생활 연구의 여러 전통들은 각각 기본적으로 상이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성립됨

필자는 이상의 각 전통에서 일상생활론의 출발
점이 된 문제 의식을 〈일상생활의 소외 비판〉
및 〈일상생활의 인간화〉라고 하는 커다란 틀
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인간을 무력

화시켜 버린 전통적인 거대 사회 이론 등을 문제
삼고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제 3장

앙리 르페브르의 유토피아적 일상생활 비판론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이론가이자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이 노동, 가정 생활 혹은 사생활, 그리고 여가 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세 영역 내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세 요소들의 산술적인 합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은 이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이다.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곳이 일상생활이다.

+ 사실 그에게서는 일상생활 개념부터가 가장 단순한 개념, 가장 명백한 개념인 동시에 가장 파악하기 힘들고 규정하기 힘든 개념이었다.

르페브르는 일상성에 의해 일상생활이 규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상성 속에는 변증법적인

모순들(욕구와 소망,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소외와 소외로부터의 해방 등)이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어, 일상생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증법적 모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소외 현상의 발견과 그것의 비판적인 극복에 특별히 몰두하였는데, 그것은 실천적인 관심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의 일상생활 이론은 곧 일상생활 비판론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일상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상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체험이 본질상 극적인 것이라고 묘사한다. 반면에 일상성은 극적인 것들을 질식시켜 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곳에 생활이 위치해 있다.

체험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체험화되는, 양자 간의 이 끊임없는 상호 전환, 이것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일상성과 근대성이야말로 오늘날 시대정신의 두 얼굴이다.

르페브르는 오늘날의 사회를 일상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로 보았다. 그리고 이 일상성의 지배가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람들이 일

한 계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론 저술들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과학적인 정확성 내지는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체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의 작업의 한계는 이론 내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일상생활을 매개된 매개지라는 이중적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생산적인 학문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어렵게 만들
- 모순된 일상생활이 어떻게 모순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순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누가 그것들을 판단하는가?
- 그기준은 무엇인가?
- 일상생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영구문화혁명론은 너무 선부르고 추상적인 결론이다.
- 일상생활에서의 소외 극복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인 개인이나 사회 집단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르페브르의 이론이 유토피아적인 이론이라고 일반적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생활 속에서 본래적인 인간의 자질을 잃어버린 채 잠재적인 로봇, 즉 일상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성을 되찾고 소외된 일상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상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체 일상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는 총체적인 혁명적 실천을 문화 혁명이라 불렀다. 그는 근대 일상생활의 소외는 바로 이러한 문화 혁명의 지속, 즉 영구 문화 혁명을 통하여 극복되어 갈 것이라 주장하였다.

공 헌

- 일상생활이라는 연구 대상을 역사 혹은 전체 사회와의 구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본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던 점
- 일찍부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과학의 토론 속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었던 점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제 4장

아그네스 헬러의 인간학적 일상생활론

아그네스 헬러는 르페브르의 이론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대표적인 일상생활 이론이다.

헬러의 이론은 일상생활의 존재론을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구성하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인간학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론이다.

그녀는 먼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구조를 특징적으로 분석한다. 그녀에 의하면 일상생활이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사는 생활이다.

헬러는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구조에 관해서 분석한 후에 다른 저서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녀는 일상생활이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가능성을 그때그때 창출하는, 개별 인간들이 자신들의 재생산을 위해 행하는 활동들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일상생활 개념에 대한 그녀의 정의가 보여주듯
이 그녀는 일상생활론의 체계적인 구성을 인간
학적으로 시도하였다.

일상생활의 구조적인 특징들이 경직화되어 개
인에게 운동의 여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허용하
지 않게 될 때 그 일상생활은 바로 소외된 일상
생활을 뜻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발전의 가능성
은 인류의 구체적인 유적 발전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헬러가 일상생활의 소외를 노동의 소외
처럼 인간의 유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하여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노동의 소외처럼 일상생활의 소
외를 역사적인 현상으로도 보았다. 소외된 일상
의 구조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

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녀에 의하면, 모든 시대에는 소외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이 있었다. '각자
현실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생
활 영위를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예로 스토
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을 들었다.

헬러는 일상생활의 소외를 결코 필연적인 것으
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일상생활의 소외의
원인을 일상구조 자체에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
의 관계들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관계들의 변경
을 통하여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유 재산제 및 이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가 긍정적으로 극복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러한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 합

헬러 이론의 궁극적인 관심이 일상생활의 구조에 대한 단순한 묘사에 있지 않고, 르페브르처럼 소외된 일상
생활에 대한 비판 및 일상생활의 소외의 극복에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발견된다.

한 계

- 기존의 역사 이론 혹은 전체 사회 이론 수준에서의 논의들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 구체적이며 경험적인 일상생활의 탐구에 사용되기 어렵다.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제 5장

알프레드 슈츠의 일상생활세계의 의미구조론

일상생활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 가운데에서 슈츠의 이론은 대표적인 현상학적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슈츠는 일상생활세계를 크게 상식 세계, 일의 세계, 사회 세계의 3 가지 관점에서 다루었는데, 이들은 각각 인식론, 행위론, 사회 이론의 측면에 해당된다.

우리의 현실은 복합적 현실이며, 우리는 이 복합적인 현실들 사이를 넘나들며 산다. 그러나 슈츠는 복합적인 현실들 가운데 특히 일상생활 세계의 현실에 주목하여 그 의미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그가 일상생활세계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 경험의 원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현실’)

슈츠의 정의에 의하면 일상생활세계는 <온전히 깬 의식을 가진 성인이 자신의 동물들과 함께 그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세계, 그러면서 자연적 태도를 갖고서 하나의

총 합

그의 이론은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철학이론, 사회학 이론 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매우 추상적이다.

그는 분명히 일상생활세계가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중심 주제임을 최초로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었다.

현실로 경험하는 세계〉이다.

자연적 태도란 온전히 깬 의식을 가진 정상적인 성인이 갖는 기본적인 태도로서 모든 주어진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태도이다.

후설의 자연적 태도와 환경세계 내지 생활세계, 그리고 셀러의 비교적 자연적인 세계관과 생활 환경 같은 개념들은, 슈츠가 자연적 태도를 일상생활세계의 기본적인 인식 태도로 규정하고

상식 세계로서의 일상생활세계의 의미 구조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일상생활세계는 애초부터 사적인 세계가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혹은 사회적인 세계이다.

일상생활세계는 처음부터 이론적인 관심이 아닌 현저히 실천적인 관심에 의해 지배되어 있는 세계이다.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제 6장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일상생활 이론 - 미드와 고프만을 중심으로 -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문제, 즉 개인은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반대로 그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가장 대표적인 이론 전통이 바로 오늘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 불리는 것이다.

다양한 갈래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결국 미드의 이론으로 귀결된다.

개별 인간은 정신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자아를 갖게 된다. 미드는 자아를 〈I〉와 〈Me〉라고 하는 두 측면의 변증법적 혼합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 Me : 타인들이 나에 대하여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태도들

- I : 이러한 타인들의 태도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자아는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의해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기도 하다.

미드	고프만
자아의 발생 및 발전 과정에 큰 관심	자아의 표현 및 상황 대처 방식들에 관심
자아 연구에서의 시간 차원의 중요성 부각	사회적 공간 차원에서의 연구의 지평 확대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음	현상학의 영향을 받음
유아기의 자아에 큰 관심	유아기를 벗어난 자아에 관심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행위 단위의 일반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데 관심	여러 개별적인 행위 단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데 관심
상징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	음성 언어와 함께 다양한 비언어적 상징 내지는 신호에도 주목
거시수준의 사회 현상	미시적 분석에 몰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	

자아가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이중적이며 동태적인 성격, 즉 변증법적인 성격에 대한 미드의 관점은 고프만에게도 계승된다.

미드와 고프만은 자아의 문제를 사회학적인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종 합

미드의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 위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유용하면서도 독특한 이론적인 자원을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드의 이론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하나의 뚜렷한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이론 전통 위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학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독특하게 다룬 학자가 바로 고프만이었다.

이 이론 전통에서는 일상생활의 문제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일상생활을 이루는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과 개인의 자아에 초래되는 그것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의 이론 및 구조기능주의적 전통의 이론과 구별됨
- 현상학적 전통의 이론과도 구별됨

제 7장

일상생활 이론의 비교 연구

사회학계에서 대표되는 일상생활론의 전통을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으로 크게 나눈 후,
그 각각의 전통을 대표적인 학자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비교 분석 대상

비교 분석 대상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르페브르	헬러	후설	슈츠	미드

○ 먼저 인식론적 논의의 수준에서 볼 때, 각각의 일상생활 이론은 일상적인 경험의 성격을 특별히 명증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하는가?

일상생활 이론들 중에서 인식론적 수준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다룬 이론은 다음 아닌 현상학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 일상적인 경험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현상학적 전통의 방식과 매우 다르다.

일상생활의 소외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이 지배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도 인식론적인 질문은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일상적 지식, 그리고 이론적 지식 [인식론]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르페브르	헬러	후설	슈츠	미드
(5)르페브르에게서 일상적 사유와 일상적 지식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명시적으로 문제되지 보다는 의식과 의미장에 관한 그의 이론 속에 함몰되어 있음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론이 이론적 인식, 특히 변증법적인 이론과 이론가를 일상적 체험 내지 일상적 인식과 그 주체자에 비해 훨씬 강조하고 있음	(4)그녀는 체험의 문제, 인식론적인 질문을 더 이상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인간학적인 질문으로 대체시켜 버림 한편, 일상적 지식의 인간학적인 측면, 종합화 욕구의 문제와 함께 그것의 실용주의적인 특성에 관해 자세히 설명. 일상적 지식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슈츠의 설명이나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미드의 지식론의 많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1)생활세계란 근본적으로 모든 논리적인 작용 이전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의 세계	(2)생활세계 문제에 대한 후설적인 접근 방식이 자연적 태도로부터가 아니라 현상학적인 환원의 태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 상호주관성의 문제/자연적 태도를 가진 구성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세계의 의미구조 분석에 관심	(3)한편으로는 후설이나 슈츠처럼 일상적인 경험, 특히 직접적인 경험이 모든 지식 유형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험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넓은 의미의 행태주의의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함

체험 내지 일상적 지식이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어느 정도 인식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선술어적, 전이론적인 경험 내지 체험이 과학적 지식, 이론적 지식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강조됨	자신의 반인식론적, 실용주의적인 입장 때문에 경험 자체에 속성과 구조를 비판적이며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대신에 현존하는 경험을 전제한 후 이것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조건을 탐구하는 데에 몰두
↓		↓
(6) 자신들의 이론 전통에 얽매어서 다른 요소에 의존하여 설명		

○ 행위론적 논의의 수준

이론들이 일상적인 행위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행위의 성격을 비일상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일상생활 연구에서 행위론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상학적 전통 위에서는 행위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이 슈츠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행태주의자이며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미드에게서는 행위론적인 논의가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는 헬러가 일상적 행위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일상생활에서의 행위와 실천, 그리고 노동 [행위론]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르페브르	헬러	슈츠	미드
(5)분석적인 행위 개념 대신 변증법적인 실천 개념을 취함	(4)행위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행동개념을 사용 행동의 문제를 특히 사회 혹은 개별 인간의 재생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행위의 일종인 노동	(1)슈츠의 행위 개념은 <자발적인 삶으로부터 나오는 주관적으로 유의미한 경험들>인 거동 중에서 특별히 미리 생각된 기획에 입각한 거동	(2)미드의 행위개념은 <삶의 과정이 필요로 하는 어떤 종류의 자극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삶의 과정을 유지시키려는 충동> 혹은 <자극과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들로 이루어진 진행되는 사건>
실천이라는 행위론적인 개념이 체험의식 등 인식론 수준의 계기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됨 (≒ 미드)	Arbeit 개념을 끌어들이 그녀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유익한 활동이자 동시에 일상적인 활동이기도 한 노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수행해야 함	그는 행위 가운데 일이라는 행위가 일상생활세계의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파악	행위를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 유기체의 적응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
(6)행위의 특징한 형태로서의 노동이라는 주제에 특별한 관심		(3)세계의 지배라는 실용적/실천적 관심과 세계의 이해라는 이론적인 관심을 대립시킨 슈츠와 달리 미드는 세계에 대한 적응을 위해 세계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관심만이 일상적이거나 과학적인 행위 모두를 지배한다고 봄	
(7)전체 사회 내지 역사에 관한 사회론 수준의 논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인식론이나 행위론 수준에서의 논의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봄			

○ 사회론의 수준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행위론처럼 사회론도 슈츠에 와서 비로소 일상생활론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가진 미드에게서도 사회는 대체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문제가 되었다.

일상생활과 사회 [사회론]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르페브르	헬러	슈츠	미드
[3]사회론의 수준에서 헬러와 르페브르가 보여준 일차적인 관심은 일상생활의 소외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전체 사회의 제 측면들과 이것들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에 있음		(1)슈츠가 주요 주제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상호 주관성의 문제와 사회 세계의 의미 구조의 문제, 그리고 상징 체계로서의 사회의 문제 등	[2]미드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위에 놓여져 있음
		사회 세계를 일상생활세계와 대립되는 관계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파악하였음 사회 세계를 둘러싸면서도 이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화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면서 일상적인 경험이 사회과학의 근거로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볼 때, 미드는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사회가 개인보다 먼저 주어졌 있다는 점을 강조 미드는 사회가 정지된 상태, 완결된 상태에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함 미드의 사회 이론은 정신 및 자아의 발생에 관한 이론, 행위 이론과 함께 일상생활에 관한 그의 논의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임
사회적 변혁 가능성을 강조하고 사회 변혁에서의 인간적인 노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			

○ 차이점 발생

이론가의 개인적인 관점 및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이론가들이 서 있는 이론 전통들 사이의 차이점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각각의 이론 전통의 특징적인 학문관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현상학적 전통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르페브르	헬러	슈츠	미드
세계 해방 - 해방적 관심		세계 이해 - 해석적 관심	세계의 지배 내지 통제 - 도구적 관심

제 8장

일상생활 소외의 세 차원

필자는 일상생활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들을 〈일상생활의 인간화〉라고 하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일상생활의 소외비판론〉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다룬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왜곡과 그 주요 원인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의식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이론들은 소외의 핵심적인 내용과 원인에 대하여 각각의 이론 전통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의 일상생활을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표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런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의 이론적인 출발로 삼고자 하였다.

이론들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소외의 주요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의 어느 하나 혹은 모두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일상생활 소외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일상생활 소외의 세 차원으로 간주하여 여기서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자본주의와 일상생활의 소외 [경제적]

자본주의에 의해 비인간적으로 왜곡된 일상생활이라는 문제는 주로 좌파 진영의 학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본격적인 논의는 일상생활의 소외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자본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소외를 논할 때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별 인간이 직면하는 인간성의 소외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인간학적인 형태를 취하며 “인간은 자신의 전면적인 본질을 전면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한 총체적 인간으로서 획득한다”는 ‘마르크스의 총체적 인간상’으로부터 논의를 출발시키는 경향]

헬러에 의하면, 분업화와 상품화가 특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유적인 인간,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 전개의 가능성을 극도로 차단당한 채 단편화되고 특수화된 일상생활

을 살아갈 뿐 아니라 물신주의적으로도 소외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두 번째 유형의 설명 방식은 생산 노동자의 소외된 일상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본주의적인 생산 관계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사유 재산제 때문에 생산물로부터, 생산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유적인 존재로부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마르크스의 노동소외론’에 기초해 있음]

이 두 번째 설명 방식은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직업적인 노동 생활의 영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적인 생산 관계에서 초래되는 직업적인 노동의 소외가 노동자의 일상생활 전반의 소외를 설명하는 핵심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의미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단화 되어버렸다. 따라서 노동의 소외가 곧 일상생활 전반의 소외를 의미하지는 않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산적 노동의 영역이 아닌 소비 영역에서도 노동자 대중의 일상생활을 소외시키는가?

변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 영역의 확대 및 소비 능력의 향상은 생산 관계로 인하여 소외된 일상생활의 소외의 극복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의 소외들에다 새로운 소외들을 덧붙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비 이데올로기의 유포]

[소비 영역에서의 개인의 수동성 심화, 일상생활 자체의 객체화 심화]

그렇다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조작을 통해 일상생활이 소외되는 현상은 특정한 계급 구성원에게만 국한된 현상인가?

중간계급이나 대부르주아 계급 구성원이 이러한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르페브르 표현에 따르면, 중간 계급 구성원에게는 비록 일상생활은 있으나 소비적인 일상생활에서 〈양식〉이 부재하며, 대부르주아 계급 구성원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부재한다. (p.261)

소비 조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소외는 계급에 따라서 그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소비자들끼리 경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소외는 모든 소비자에게 불가피한 것, 즉 운명적인 것인가?

헬러는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대답을 제시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일상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관계의 극복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조건이 요청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별 인간이 특수성을 극복하고 한 시대의 보편적인 인간 속성, 즉 유적인 속성을 재현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조건이 요청된다.

소외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지만, 전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소외가 생산적 노동 생활의 영역에서는 불가피한 것인가?

일상생활의 소외 가운데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직접 기인하는 생산적 노동의 소외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고용 관계 속에 있는 대중의 직업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정도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 국가의 통제와 일상생활의 식민화 [정치적]

국가에 의한 일상생활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겪게 된 전체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었다.

르페브르는 이와 같이 1960년대 초에 이미 전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새로운 형태의 왜곡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단편적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는 이후에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명제로서 비로소 전개되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경제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기능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 기구의 행정적인 하위 체계의 복잡성도 증대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성장한 경제 체계-행정 체계의 복잡체가 이제는 역으로 생활세계 속에서 침식 과정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그에 따른 생활세계의 병리 현상은 불가피한가?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를 경제와 국가의 억압적인 힘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영역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거부하였고, 생활세계에는 분명히 이러한 경향성과 이에 저항하는 반대 경향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헬러와 그녀의 동료들 역시 일상생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 사회를 〈소비에트 사회〉 내지는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라고 부르면서 이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욕구 독재제〉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 독재제〉로 개인의 주관적인 욕구의 생존권 자체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헬러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하면 욕구 독재제에 의한 일상생활의 소외도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p. 274)

○ 근대 문화와 일상생활의 의미 상실 【문화적】

하버마스는 베버가 제시한 사회의 합리화 명제를 재검토한 후 베버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즉 서구의 근대적인 합리화는 한편으로는 ‘자유 의 상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의 상실’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버마스_〈생활세계의 문화적 빈곤화론〉)

하버마스에 의하면, 근대 이전 합리화되지 않은 생활세계에서는 인식적/도구적 계기, 도구적/실천적 계기, 그리고 표출적 계기가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존재하였다.

그후 근대화와 함께 생활세계의 탈마력화와 그 결과로서의 합리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실질 합리성'의 증대보다는 '형식 합리성'의 증대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세계의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진 합리화는 이처럼 생활세계의 가치 영역들 사이의 분화뿐만 아니라 전문화도 초래하였다.

그리고 전문화의 결과로 전문가 문화와 광범한 공중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여 전문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곧바로 일상적인 실천의 소유로 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하버마스는 바로 여기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근대적 생활세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생활세계의 한절화)

한편, 현상학적 이론가인 후설은 근대 과학이 왜 생활세계의 탈의미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문이 진정한 인식으로서의 합리적인 인식의 추구(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포함하여..)를 포기한 채, 자연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한 결과는 인간의 삶에 내재해 있는 가치나 의미의 문제가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었다.

- 합리주의가 자연주의에 매몰되었음은 근대 학문이 자연과학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잘 나타남

- 근대의 합리주의가 객관주의에 의해 매몰되었음은 근대 학문이 수학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잘 나타남

후설은 근대 합리주의가 자연주의화, 객관주의화라는 길을 걷게 됨으로써, <현실적 합리성> 혹은 <진정한 합리성>이 결여된 유럽의 합리주의적인 문화가 결국 좌초하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학문의 위기, 인간성의 위기, 삶의 위기를 포함하는 유럽 문화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4.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제 9장

한국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의 소외와 합리성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은 과연 어떤 점에서 기본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자본주의와 일상생활의 소외 [경제적 차원]

한국 사회는 사유 재산 제도 및 시장 경제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초기 자본주의를 특징짓던 그러한 형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경쟁 자본주의와는 구별된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서구의 변화된 자본주의의 특징인 조직 자본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의 자본주의를 조직 자본주의 이후의 형태로서 제기되는 〈탈조직 자본주의〉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한국 자본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의 비동시적인 일상생활이 한국 자본주의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향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대표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수도 있을 것이다.

1.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결과 분업화와 상품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별 인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속 계급을 불문하고 인간성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
2. 자본주의적인 고용 관계는 피고용자로 하여금 결국 직업적 노동의 의미로부터, 물질로부터, 그리고 타인, 즉 고용주 및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용자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고용 관계로 인한 노동 생활의 소외 정도는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계급 갈등의 평화화를 특징으로 하는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전개된 하버마스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소비 생활의 측면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 능력의 향상이 곧바로 보다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소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소비 생활에 있어서 수동성이 더욱 강화되어 일상생활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소외된 노동 + 소외된 소비]

○ 국가와 일상생활의 소외

[정치적 차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민간인 독재자 및 정치 군인들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장악, 유지되어 왔었다. 또한 실질적인 통치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빈번히 권력 중심부의 자의에 의해 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에 와서 변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러한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적,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크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이 국가의 통제에 의해 왜곡되는 대표적인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1. 통치 집단에 의한 정치 권력의 끝없는 독점화기도 및 그 수단으로서의 중앙 집권적 국가 형태는 오랫동안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일방적인 예측 및 그 결과로서의 일상생활의 극단적인 정치적 소외 내지는 일상생활의 비정치화를 초래하였다.
2. 통치 집단의 권력 장악 과정이나 권력 유지 과정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초법적 내지는 탈법적인 형태는 시민 대중의 일상생활의 합리화를 오랫동안 지체시켜 왔다.
3. 통치 집단은 한편으로는 시민 대중의 일상생활의 비정치화 내지는 사이비 정치화를 끊임없이 꾀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결핍된 대중에 의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4. 일체의 사고 및 행위를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일적으로 재단한 결과 서구의 경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문화적인 빈곤화 내지는 문화적인 소외가 초래되었다.
5. 중앙집권화된 국가 권력 아래에서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화된 국가 관료 조직과 시민 대중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은 이제껏 고찰된 일상생활 왜곡의 제 양상이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재생산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한국 사회의 지배 문화에 의한 일상생활의 소외와 도구적 합리성 비판 [문화적 차원]

한국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문화 자체를 둘러싼
모순적인 경향이 뚜렷이 존재해 왔다.

1. 경제 문화

한국 자본주의의 지배 정신은, 비록 한국 자본
주의가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비
동시적인 여러 측면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 합리성의 국가 의존적인 추구
라고 하는 모순적인 결합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
다. 서구와 같은 계급간의 실질적인 타협 모델
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극단
적인 추구를 지향해 왔다.

2. 정치 문화

한국의 정치 문화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문화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는 일차적
으로 정당성의 기반이 약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
는 데에 기능적인 정치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결과 형성된 산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왜곡된 일상생활을 해명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배 문화에 관한 논의는 결
코 한국 자본주의의 지배 문화 및 한국 정치의
지배 문화에 국한될 수 없다.

본격적인 근대화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한국

에서는 근대적인 정치 체계 및 경제 체계의 기반
이 되는 문화 영역에서 합리화의 지체가 현저히
존재한다.

따라서 하버마스식의 설명들과는 달리 한국 사
회에서는 일상생활의 왜곡을 설명하기 위해 이
를 지배 문화의 합리화 경향 및 이에 대한 반대
경향 내지는 이를 지체시키는 경향 일반과 직접
관련시키려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

한편, 지배 문화에서 목적 합리적인 합리화의
경향은 시민 대중의 일상생활에서도 반영되어
〈도구적 합리성〉의 종대 경향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왜곡됨으로써 시민 개인은
일상생활을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인생의 창조적인 작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말하자면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대상으
로서만 경험하게 되었다.

○ 일상생활의 인간화와 진정한 합리성

그렇다면 이처럼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왜곡되
어 나타난 일상생활의 소외 현상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인가 아니면 당연히 극복되어야 하
며 또한 극복될 수 있는 일인가?

- 일상생활에서의 도구적 합리성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의 대상이다.

필자는 여기서 일상생활에서의 소외의 극복 과

정을 <일상생활의 인간화>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일상생활은 진정한 합리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일상 생활 소외의 극복, 즉 일상생활의 인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합리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된 일상생활

- ① 합리적인 도구 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합리적인 가치문화의 상대적인 미발전은 합리적인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지체시켰다.
- ②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혹은 무관심한 태도가 팽배함으로써 초래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도적인 비정치화 경향
- ③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극단적인 추구는 일상생활이 오랫동안 물신주의적인 태도에 의해 지배되도록 하여 일상생활의 직업 생활화와 상품화를 초래하였다.

0.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생활세계의 관심을 충족시키려는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1. 가치 영역을 향한 반성적인 태도에 기초한 생활세계의 관심의 충실한 추구를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인식적 측면]

2. 교환가치의 생산에 지향되어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용가치의 생산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

3. 전략적 합리성의 극단적인 추구를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타인 역시 행위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소통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

모든 시민들이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주체로서 간주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의 인간화는 〈일상생활의 민주화〉를 포함한다.

결국 시민 대중의 일상생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른 수준에서의 비판적인 논의와 함께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 대중에 의한 집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일상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노력 가운데 특히 실천적인 노력을 필자는 〈일상생활의 정치〉라고 부르고자 한다.

(일상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시민 대중의 주체적인 노력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

물론, 일상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이 모든 실천적인 노력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화를 필요로 한다.

여 백

COMMUNITY PRACTICE

개인주제 연구

오다에	문화원 사업은 왜 문화원스러울까?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이선민	‘설화’에서 옛 사람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관점의 전환” - 현대적 의미. ‘현재화’
윤동현	우리의 일상생활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생활문화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철학 VS 철학』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박소현	가장 보통의 일상. 가장 보통의 특별함. 내가 바라보는 일상으로 생활 속 가치 찾기. 『대중문화의 겉과 속』 『세계문화의 겉과 속』 『철학 삶을 만나다』
최경애	‘소외’ 과거의 소외와 현대의 소외는 어떻게 다르며,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는 무엇일까?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시흥문화원 최경애 과장

생활문화 리빙랩(Living Lab)참여후기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1. 서론

문화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갖는다. 전통문화에서 대중문화로 그리고 현재는 생활문화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처음 생활문화를 접한 것은 2016년 경기생활문화플랫폼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컨설턴트들조차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다. 그 해 사업은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었다. 2017~8년에도 이어서 이사업을 하면서 전해보다는 나아 보였으나 무엇인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가 바뀌면서 주최 측의 평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부터 시에서도 생활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올해는 생활문화 팀이 생겼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협조 대상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회의 참석 때 마다 불편함을 준다. 물론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업

을 먼저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문화원직원으로서
서는 많이 불편했다. 또한 생활문화사업에서 예
로 많이 들고 있는 진접문화의집의 부침개사업
을 시 담당자에게 듣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럴 때 내가 생활문화에 대해 더 많
이 알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원 직원으
로써 문화원이 생활문화를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
다. 간혹 생활문화사업을 해본 경험으로 그들보
다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2. 본론

1) COP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이 교재를 통한 공부는 큰
의미를 주었다. 그동안은 생활문화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향유하고 싶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
는 것이 생활문화라고 알고 있었고 그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고민을 많
이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히 주민들과 어
떤 것을 할까하고 고민해 왔다면 이 교재를 공
부하면서 생활문화를 알려면 사회학 외에 철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등을 배경으로 연관 지
어서 생각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동안 너
무 눈앞에 것만 보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
닌가 생각되었고 생활문화가 단순한 것이 아니
라 그 폭이 매우 넓고 깊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교재를 통해 생활문화에 대해 확장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하는지를 배웠다면 이 모임을 하
면서 나의 욕구에 대해 알고자한다는 모임원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다. 자식과 같은 친구들과 이모임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와 ‘우리’이다. 나의
욕망에 대해 알고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나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알고자 했던가? 그런
적이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언제
나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며 나 자신을 소외시
켜왔다. 나를 앞세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들과 나만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2) 소외를 극복하는 생활문화와 문화원의 역할

COP를 통해 참여자들과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
야기 하면서 나는 그 중에 ‘소외’에 대해 생각하
게 되었다.

소외가 사회의 한 현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과거 1차 산업이 주도적이었을 때는 공동체 의
식을 바탕으로 한 협업이 사회의 규범적 역할을
하였다면 근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발달
은 인간이 기계의 부속으로 전락하는 주객이 전
도된 듯하다.

한때 무성영화로 유명한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
이 주연한 ‘모던 타임’은 웃음을 자아내는 행동
을 보이면서 그 시대의 노동현장의 슬픈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테일러가 연구하였던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포드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포디즘)에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 및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냈으며 그 시대 획기적인 경영 혁신을 이루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자본가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준 포디즘 시스템은 인간에 일부 삶을 발전 시켰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는 단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기계의 부품화가 되어가는 인간상들을 보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분업화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인간이 점점 소외 되가는 현상들을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홀로 살고 있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한 원인과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인해, 소외 현상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변화에 대응하고 추구해야 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생활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들과 같이 공감하는 틀에서 문화원만의 장점을 살린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문화사업은 소외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결론

생활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사업을 접하게 됐다.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기대를 했다. 그런데 첫모임

에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고민이 되었다. 나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생활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우고자 했는데 첫날 모임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은 많이 달랐다. 그러나 이 모임을 지속하다보면 그래도 뭔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속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고속도로 틀게이트의 하이패스와 일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서안산 틀게이트는 가끔 이용해 일반인 곳을 알고 있어 수원을 가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동수원 틀게이트는 처음이라 잘 구분이 안 된다. 모임의 첫날 돌아오는 길, 아니 나 다를까 하이패스로 나오고 말았다. 오는 내 내 신경이 쓰였다.

동수원에서 하이패스로 나왔는데요.

비상감박이를 키고 기다리세요.

확인을 하는 동안 기다렸다 요금을 지불하고 통과했다.

나는 이렇게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모임을 왜 참석하고 있을까?

어느날은 차가 너무 밀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여행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하루를 빼고 모두 참석했다. 그 만큼 이 모임은 내게 매력력이 있었다.

「생활문화는 현재 지역의 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고,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생활문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이다.
지역성 -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생활문화다!
자발성 - 그 힘은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일상성 -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다!」
(웹진 경기문화저널18호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웹진 경기문화저널이 그 동안 많이 왔지만 읽어보고 저장까지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그 동안은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좁은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 COP를 통해 책을 본다는지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넓게 봐야 한

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당장 현장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번 COP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임이 이번차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문화원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심화 학습이 아닌 이번 모임의 수준으로 다시 한 번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혼자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 많은 자료를 공유하면서 문화원의 장점을 살리는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하고 싶다. 그동안 어려운 교재 보기 쉽게 요약해준 동현쌤 너무 감사하다. 모임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원가 이론 것 같은 뿌듯한 기분 만들어준 친구들 감사하고 물론 처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들.

이천문화원 이선민 팀장

옛이야기에서 생활문화 찾기

어느 날 갑자기 '생활문화'라는 말이 들린다. 아직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여 분분한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이다.¹ 짧은 생각이지만 '평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온 문화적 활동' 정도로 거칠게 정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인류역사에서 오래도록 문화는 지배계층이나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층민은 삶에 지쳐 감히 문화와 예술을 논할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끔 지금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만은 확실하다. 예술은 더 이상 전문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도 '생활문화'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비롯한 문화, 이른바

1 아직 법률상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고, 다만 경기도의 자치법규(경기도생활문화진흥에관한조례 제2조 [정의] 2항)중에 생활문화에 대해 정의한 내용은 있다. 내용에 따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생활문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생활문화’도 과거 지배계층이 누리던 ‘고급’문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은 나보다 낮은 계급의 누군가와 차별되는 삶이 아니다. 적어도 법률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돌쇠가 나무를 하고 마당을 쓸 동안, 김 진사는 대청마루에 고고하게 앉아 풍월을 읊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문화는 지배층이 누리던 ‘고급’문화와 성격이 전혀 다른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 생활문화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하며, 스스로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양반들이 누렸던 호사로움을 우리도 한번 누리보자는 태도는 결코 생활문화의 영역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과거에도 ‘생활문화’가, 혹은 그 비슷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만약 양반계층이 아닌 평범한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찾는다면 과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혹시 옛 이야기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상상을 해보자.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한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가.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모두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가끔 상대방의 심드렁한 반응에 멋쩍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을 만나면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신나게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세

상과의 소통이며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내용 자체는 객관적일지라도, 이야기에는 나의 감정이 담겨있다. 이야기는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만이 아니다. 일종의 치유행위에 가깝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나 자신도 모르게 받은 상처와 갈등을 보듬고, 평안을 찾는다. 가장 유능한 심리치유사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야기의 작동원리와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간혹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을 문 것은 뉴스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옛 이야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특별’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에게 퍼지고, 생명력을 갖는다. 밤골에 사는 김진사 덕 며느리 이야기, 빈대가 많아서 망해버린 어느 암자의 이야기, 미국산에 나타난 여우이야기...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늘날에도 전하는 옛날이야기는 특유의 찰떡거리는 생생함이 살아있다.

지금은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불과 70여 년 전인 1945년 만해도 한국인의 78%가 이른바 ‘문맹’이었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소수의 지식인층을 제외하면 언제나 하층민은 ‘낯 놓고 기역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는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기록이나 다름없다. 할머니가 딸에게, 딸은 손녀에게 당대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

를 전달했다. 도드람산 효자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를 어떻게 봉양해야 하는지, 거지개마을 전설을 들으며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를 들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 오늘날 우리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았던 조상도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을 드러내고, 이야기로 외부세계의 현상을 표현했다. 이야기는 세상과 만나는 일종의 통로였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아니 그보다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옛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옛이야기에는 당대인의 생생한 정신세계와 그들의 삶. ‘일상적인 문화’의 흔적을 유추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 다른 상상을 해보자. 어느 날 어떤 이천사람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잠시 너른 들판을 보며 쉬는데, 한 동양인을 만난다. “Buen camino!”—부엔 까미노! 좋은 순례길 되세요—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발음이 낮적이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네. 선생님도 한국에서
오셨나보죠? 전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도 이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저 먼 타국에서 만난 한국사람. 그것도 같은 고향인 이천사람. 어찌 반갑지 않을까. 따져보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완벽한 남남이다. 그런데 짧은 대화만으로도 지금 두 사람은 진심으로 반가움을 느끼고, 상대가 원한다면 스페인까지 힘들게 가져간 소주를 꺼내 나눌 용의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둘 다 ‘이천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함께 스페인의 들판을 보며 ‘구만리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올해 ‘쌀문화축제’는 어땠는지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비유가 과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을 한 순간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이천이라는 공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잠시 이야기가 엇나갔지만 옛 사람들에게 있어 이야기는 나와 세계가 소통하는 방식이었고, 자연스럽게 당대 사람들의 의식이 녹아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한다.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일정한 공간(지역)에서 겪은 공통의 사건(역사)이 있어 하나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것을 외부에서 보면 그 지역의 특수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경험에서 ‘이천사람’이라는 특수성이 생겨난 것이다. 지역적 특수성은 타 지역에 대한, 혹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부정적으로 발현할 가능성도 있지만 스페인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처럼 일종의 동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옛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만약 누군가 이천의 이야기를 수집한다고 치자.

이야기란 참으로 오묘해서 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딘가 조금씩 변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으며 굉장히 긴 시간동안 변함없이 이어진다. 이천의 옛이야기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이천사람의 의식세계가 배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천의 이야기를 분석하면 이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를테면 조상들의 사고방식과 그것이 발현된 그들만의 '생활문화'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성격 급한 누군가가 '당장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옛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분이 만족할 만큼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족한 내가 감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논의하며,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옛이야기에서 생활문화를 찾아보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금껏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이해했던 10% 지배계층의 고급문화와 전혀 다른,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90% 하층민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옛이야기에서 생활문화를 발견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민족의 진짜 '전통문화'에 더 가까운, 조상들의 삶이 녹아있는 생활문화일지도 모른다.

화성문화원 배준영 주임

사람이 그리는 무늬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마치 선문답처럼 느껴진다. 대답을 들어도 시원치 않고, 몇 마디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진리를 묻자 스승이 “마당을 쓰는 것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위의 대답이 돌아오는 질문 말이다. 스무고개를 하듯 질문을 거듭한 제자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문화원에 일하고 있다보니 문화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보면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생활문화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cop를 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텍스트를 같이 읽고 토론했지만 거기엔 내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매꾸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은 아마 생활문화에 대해 떠오르는 단상을 나열하는 식이 될 것이다.

생활문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하는 요리, 꽃꽂이 같은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요즘 ‘생활문화활성화사업’이라 부르는 것들을 보면 ‘문화예술 교육, 동호회 지원’, ‘지역네트워크 축제’정도가 되는 것 같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을 모아내는 것이 생활문화 활성화의 핵심인 듯하다. 문화기획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 역시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담고 있는 말이다. 그렇기에 반대로 문화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도 사람이 마을을 떠나기 때문이다. 사람과 문화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빠진 문화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의식주에 문화가 있고 생활, 현대, 교육, 직장, 계급, 노동, 여가, 역사, 사회, 남성, 여성, 노인, 어린이, 음악 등 사람과 관련된 어떤 단어에 문화를 붙여도 어색함이 없다. 이렇듯 문화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쯤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를 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문득 문화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진

다. 어느 강의에서 듣기로 경작을 뜻하는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의 번역어라 한다. 번역어라하면 서양과 접촉이 없던 옛날에는 문화라는 단어조차 없었나 싶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한자로 문화(文化)라고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또 책에서 읽기를, 文(문)은 문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문자가 곧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본래 어떠한 ‘무늬’를 뜻하였다가 글자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이 ‘무늬’라는 말을 보고나서야 나름대로 감이 오기 시작한다. 여기에 ‘바뀌다’의 의미를 담은 ‘화’를 붙여 처음에는 ‘무단’의 반대로 백성을 교화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를 담은 정치적 용어로 통용되던 말이었다고 한다. 여기에 ‘문’은 그대로 남고 ‘화’의 정치적 의미가 희석된 요즘의 문화란 사람이 그리는 무늬, ‘생활양식’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다. 앞에서 문화가 ‘생활양식’쯤이라 했으니 일부분 동의반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말하는 ‘생활문화’는 ‘자발적, 일상적’이란 표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된다. 생활문화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클래식 공연 관람’과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던 고매한 것에 밀려 천근한 것으로 여겨지던 ‘생활’의 영역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표현인 것이다.

생활은 생계활동이 속뜻인데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감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다음

은 사전에서 검색한 생활이다.

- ①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 “~ 환경”
- ②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 사람이 먹고 입고 쓰면서 사는 일. “~ 수준”
- ③ 그 조직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일. “군대 ~”
- ④ 생물, 특히 동물이 제 기능과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 “야생 동물의 ~을 관찰하다”

위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마치 지식의 반대말인 듯 사용되곤 했다. 하기 싫은 집안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마치 높은

문화를 방해하는 것 마냥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에서 돼지를 말아 온 쪽일 것이다.

이렇듯 생활문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로’ 혹은 ‘엘리트’의 반대말로 자칫 그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했던 ‘아마추어’, ‘민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왜이래 아마추어 같이’같은 유행어가 이전의 인식을 대표한다면 ‘시가 뭐고?’같이 칠곡 할매들이 쓴 시집이 각광받는 것이 새로운 인식을 대표한다. 이처럼 생활문화의 가치를 잘 담아낸 것이 있을까. 나에게 “문화가 뭐고? 우리가 사는게 문화지.”라고 칠곡 할매가 말하는 것만 같다.

COP

생활문화 기초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생활문화 학습실행공동체(CoP) - 생활문화 리빙랩(Living Lab): 문화원에서 생활문화 해보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본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